

# 독립정신

2017. 5, 6 통권 93호

권두언\_촛불의 아들, 문재인 정부의 가능성\_이병천

특집\_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의 과제\_이만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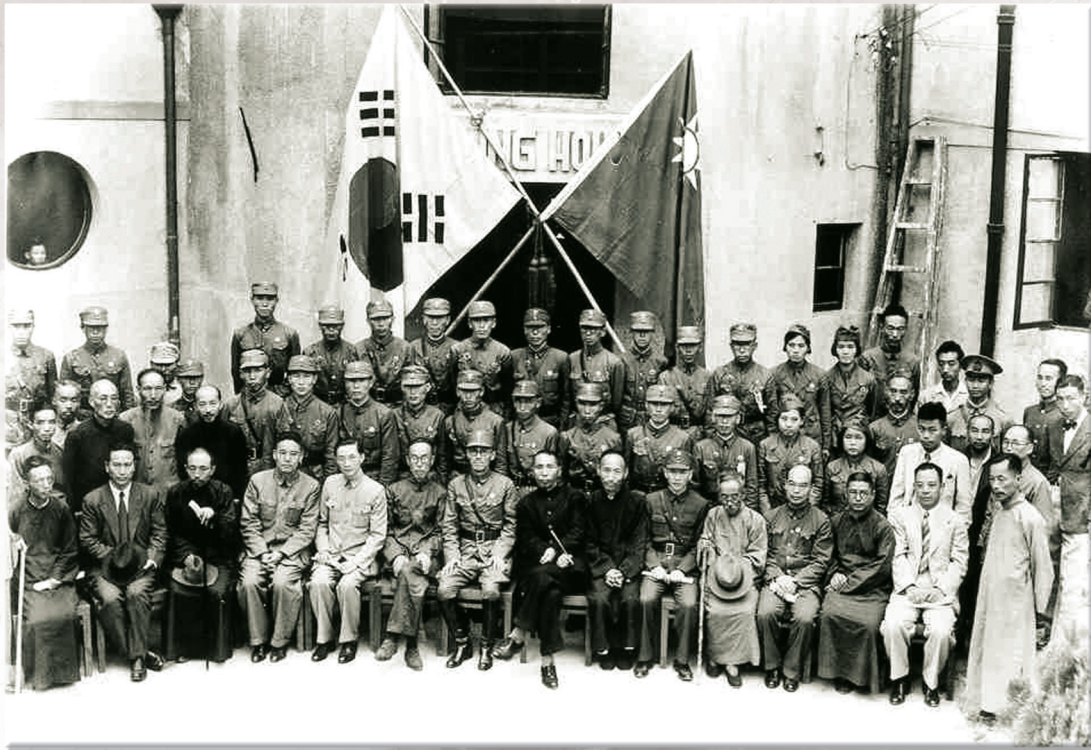
친일파와 그 후손들\_부하 검사로부터 기소를 당한 부끄러운 친일 검사\_최광웅

우리고장의 독립운동\_담양의 한말 의병과 독립운동\_최형식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_김예진 목사의 아들 김동수 교수를 만나다\_김동수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후 한중 대표들의 기념 촬영 (1940.9.17)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근대인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충칭 자림빈관(嘉陵貧館)에서 창립식을 거행하였다. 자림빈관은 충칭 시를 끼고 흐르는 자림 강 기슭에 위치한 호텔로서 연합국의 충칭 주재 기자들이 일종의 프레스센터로 사용하였던 곳이었다. 성립 전례식은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세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일본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성립을 거행한 것이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1941.12.10)

大韓民國臨時政府對日宣戰聲明書

吾人代表三千萬韓人及政府，謹祝中英美荷加澳及其他諸國之對日宣戰，以其為擊敗日本，再造東亞之最有效手段，茲特聲明如下：一、韓國全體人民現已參加反侵略陣綫，為一個戰鬥單位，而對軸心國宣戰。二、重複宣佈無效一九二零年合併條約及一切不平等條約，並尊重反侵略國家之在韓合理的既得權益。三、為完全驅逐倭寇於韓國中國及西太平洋起見，血戰至最後勝利。四、誓不承認日本卵翼下所造成之長春及南京政權。五、堅決主張羅羅宣言各條，為實現韓國獨立而適用，因此特預祝民主陣綫之最後勝利。

大韓民國臨時政府主 席 金 九  
外務部長 趙素昂

大韓民國二十三年十二月十日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8일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제에 12월 10일 선전포고를 하였다.

우리는 3천만 한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표하여 중국·영국·미국·네덜란드·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와 여러 나라가 일본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한 것이 일본을 쳐서 물리치고 동아시아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므로 이를 축하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한국의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여 오고 있으며, 이제 하나의 전투 단위로써 축심국(軸心國)에 전쟁을 선언한다.
2. 1910년 합병조약과 일체의 불평등조약이 무효이며, 아울러 반침략 국가가 한국에서 합리적으로 얻은 기득권익이 존중될 것임을 거듭 선포한다.
3.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왜구를 완전히 구축(驅逐)하기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혈전한다.
4. 일본 세력 아래 조성된 창춘(長春)과 난징(南京)의 정권을 절대로 승인하지 않는다.
5. 루스벨트·처칠 선언의 각 항이 한국 독립을 실현하는 데 적용되기를 견결(堅決)히 주장하며, 특히 민주 진영의 최후 승리를 미리 축원한다.





# 독립정신

2017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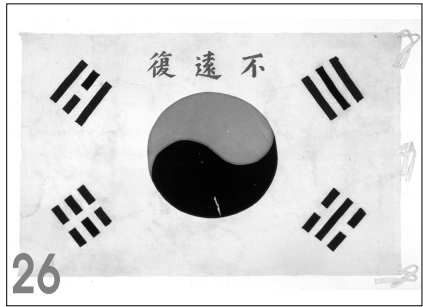
통권 93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으려 합니다.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임재경  
 편집위원 | 이두엽, 이학노, 곽태원, 이일선, 안효진  
 편집·디자인 | 대관인쇄

우 04519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49 (태평로1가) 사조빌딩 305호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가격 : 5,000원



**04** 권두언\_  
 촛불의 아들, 문재인 정부의 가능성  
 | 이병천



**07** 특별기고\_  
 3.1운동 ·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의 과제  
 | 이만열



**17** 친일파와 그 후손들(13)\_  
 부하 검사로부터 기소 1호를 당한  
 부끄러운 친일검사  
 | 최광웅

**21**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_  
 담양의 한말 의병과 독립운동  
 | 최형식

**33**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_  
 김예진 목사의 아들 김동수 교수를 만나다  
 | 정리 : 본회 간사

**41** 100년 편지\_  
 신사참배에 맞섰던 여교사 '김두석' 선생님께  
 | 심옥주

**43** 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열전\_  
 전수산 지사를 그리며  
 | 이윤옥

**45** 영화읽기\_  
 영화 <더 플랜>, 의혹과 신뢰의 사이  
 | 이두희

**49** 임정서가\_  
 돌아오지 않는 밀사 : 이상설 이야기  
 건국절과 소녀상  
 안중근家 사람들  
 끝나지 않은 역사  
 만들어진 간첩  
 | 편집부

**58** 독립정신 이모저모





# 촛불의 아들, 문재인 정부의 가능성



이 병 천  
강원대 교수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이 한갓 에피소드로 끝날 뻔했던 보수장기집권의 위협에서 벗어나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갖게 됐다. 이 정부의 '역사적' 이름을 뭐라 부르면 좋을까.

어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잇는 '3기 민주정부' 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2기 노무현 정부' 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좀 실례되는 말이다. 필자는 좀 더 긴 시간대 위에 놓고 새 정부를 보고 싶다. 왜냐하면 새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의 동력에 힘입고 그러면서도 민주적, 평화적 절차를 통해 탄생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아들로, 촛불대선으로 태어났다면 그 아들다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머니를 배신하고 큰 슬픔을 안겨준 아들도 적지 않음을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 혁명의 아들은 어떤 길로 가려고 하는가.

민주화 이후 시대에 공사분간조차 하지 못하고 '유신의 추억'에 사로잡힌 불통 대통령의 유례없는 국가사유화와 수구보수의 대실패 사태가 일어났다. 촛불과 촛불을 들고 엄동설한 추위를 녹이며 국정농단과 과거적폐의 어둠을 밝힌 혁명, 이 혁명이 평화롭게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자기무덤을 판 대통령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했고 새 민주정부를 탄생시켰다.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새로움은 지난 시기 1987년 6월 항쟁 및 보수적 민주화 이행과 비교하면 분명하다. 6월 항쟁은 승리했지만 절반의 승리였고 민주화 세력은 자체 분열로 대선에서 패배했다. 이후 보수 3당의 합당이 단행됐고 폐쇄적인, 과두제적 양당체제가 지속되었다. 반면 촛불혁명은 대통령을 탄핵했을 뿐더러 수구보수 정당을 약체정당으로 추락시키고 그들을 분열시켰다. 촛불혁명에 호응한 민주개혁정당이 새 정부의 주역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현대사에서 전례 없는 새로운 다당제가 출현했다. 촛불혁명, 수구보수의 실패와 분열 속의 다당제, 민주개혁 정부의 출범, 이 정도면 우리는 1987년 체제 이후 어떤 새로운 체제 그러니까 '2017년 체제'의 성립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건 아닐까. 더구나 세계적으로 극우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한국의 촛불혁명과 정권 교체가 이룬 성취는 빛을 발한다.


그러나 우리는 과도기를 살고 있으며 현재의 정치상황에는 불안한 구석들이 많다.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문제를 빼놓는다 해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바닥으로 추락했던 수구보수당이 빠르게 되살아났다. 신생 개혁적 보수는 미약하다. 그 삼중위기관(안보위기, 경제위기, 공동체 위기)은 제법 짜임새가 있었으나 정치적 스탠스를 잘 잡지는 못했다. 새로운 다당제의 출현에 큰 공을 세웠고 '국민이 이긴다'고 목청을 높였던 새 중도정당은 자신이 중심에 두어야 할 국민이 누구인지, 자신의 새로움과 가능성은 뭔지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게다가 그 4차 산업혁명론은 기술중심적 편향이 심하다(이는 기본소득론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진보정당 후보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촛불 덕분이다. 그럼에도 엄청난 정치적 격변 과정에서 진보정당이 다당제의 당당한 한 축으로, 대중 정당으로 우뚝 올라서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 여전히 양 날개로 날지 못하는 정치체제인 데 2017년 체제를 말할 수 있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노동이 당당한' 대한민국을 호소했을 때 그 노동은 누구를, 무엇을 호명한 것일까. 블루칼라의 분단과 임금노동자의



분화가 극심한오늘의 현실에서 노동을 호명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에 대해 더 성찰이 필요한 것 같다.

문재인 정부로 돌아오자. 이 정부에 주어진 시대교체 책무는 적폐 덩어리를 청산하고 성장-일자리-민주-복지-생태-평화의 바퀴들이 공진, 선순환하는 민주적 ‘평화복지국가’의 새 길을 여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중도에 좌초한 지점을 뛰어넘는 것이다.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삶의 불안이 정치 불안을 낳아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리니 민주주의 위기가 한반도 평화과정을 위협하는 낮은 길의 악순환을 반전시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파고를 새로운 사회적, 제도적 혁신으로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다. 나아가 물질적 재화의 분배정의는 물론 모두가 저마다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게 실질적 자유와 더불어 사는 연대의 역량을 키워 주는 것이다.

너무 벅찬 과제인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어떤 외신은 문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가장 거친’ 자리를 맡았다고 했다. 과연 그렇다. 그러나 다시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한 기회가 아닌가. 촛불의 아들답게 2017년 신체제의 선도자가 될 것인가, 1987-97년 체제를 5년 연장할 뿐인 ‘3기 민주정부’로 그칠 것인가. 시작이 반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본 기사는 경향신문 2017년 5월 12일자에 기고된 글을 필자의 동의 하에 재편집하여 게재하는 것입니다.”

## 3.1운동 ·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의 과제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앞으로 2년 후 2019년에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다. 일제강점 하에서 전 민중이 힘을 합하여 나라의 독립을 선언한 사건이 3.1운동이라면, 이렇게 선언한 독립을 국가 건설로 연결시킨 사건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근대 민족운동사에서 이만큼 귀중한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이 두 사건이 100주년을 맞는데 우리는 어떠한 과제를 안고 이를 맞을 것인가,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평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온 대로 몇 가지를 지적함으로써 100주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그것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우리 민족사에서 갖는 역사적 위치를 분명히 할 것과 100주년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수행해야 할 중요과제로 나눠서 생각하고자 한다. 두 사건은 1919년 같은 해에 인과관계를 갖고 일어나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지



만, 설명의 편의상 여기서는 일단 분리하고자 한다.

### 1. 3.1운동의 민주적 의미를 활성화하는 문제

3·1운동은 일제 강점 하 1919년 3월 1일부터 1년 여간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한국의 독립을 선포하고 일제에 항쟁한 거족적인 민족운동이다. 이 운동은 종교와 이념, 지역과 계층,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일어난 거족적인 항일독립운동이며 나아가 한국사상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국’이라는 민주국가를 출발시켰다는 점에서 ‘혁명’으로도 간주되어 그 민주주의적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1운동의 시위 참가자 통계는 일제가 50명 이상의 시위만을 조사하여 작성한 것이다. 1919년 3-5월은 1,542회에 202만 명이 참가했고, 전국 218개 군 중 212개 군이 참가했다고 했다. 이와는 달리 2천여회가 넘었다는 기록도 있고, 박은식은 1년 간 1천만 명이 참여했다고 증언했다. 이 운동은 처음에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해 3월~5월까지 46,948명이 체포, 투옥되었고, 15,900여명이 부상당했으며, 7,500여명이 살해당하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사실이 있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제대로 지휘부가 없는 상황에서 격발 진행된 민중 중심의 국권회복운동은 그래서 더 의미가 깊다고 할 것이다.

3.1운동은 지금까지 국권회복운동으로서의 성격만이 대체로 강조되었다. 100주년을 맞으면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민중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3.1운동 이후에 민족독립운동이 가열차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독립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해 왔다. 3.1운동 이후에 무장 항일운동이 강화되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비롯하여 만주 지역에 30여개의 무장독립운동 단체가 생겨난 것은 이를 반증한다. 또 독립운동의 지휘부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되었고 외교운동과 각종 독립운동을 지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점에서 3.1운동은 독립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고 본다.

한편 3.1운동은 한국사에서 ‘민중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나타냈다. 3.1운동을 점화시킨 지도부가 그 이전의 양반 귀족층과 거리가 멀었고 또 3.1운동 이후에 나타난

각종 사회 민족운동에서도 민중주도의 성격이 강했다. 특히 1920년대 이후의 사회변혁 운동에서 민중의 참여가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추세는 3.1운동 이후의 한국사를 민주화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3.1운동은 그 전의 독립협회운동이나 동학혁명운동과 연관해서 그 전통과 맥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독립협회운동이나 동학농민혁명에서 성장한 민중의 힘이 일제하에서 이런 운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뜻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일어난 각종 농민운동으로 일어난 민중운동으로 그 선을 댄다고 할 수 있다. 1862년 임술(壬戌)년에 일어나 37건이나 되는 ‘민란’은 지배자들에 의해 ‘임술민란’으로 규정되었지만, 민족사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농민운동이었던 것이다. 19세기에 명멸되었던 그 수많은 농민운동이 총체적으로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으로 분출되었던 것이다. 3.1운동은 바로 이런 민중운동의 전통 위에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3.1운동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점에서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 현대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3.1운동의 민중 민주화의 의미는 더 극명해진다. 이승만 독재에 항거하여 일으킨 4.19혁명(1960)이 바로 이 전통위에서 있다. 특히 한국이 제 2차 세계대전 후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몇 안 되는 나라에 속한다는 칭송은 바로 4.19혁명의 공헌을 빼 놓을 수가 없다. 4.19혁명이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를 통해 자유를 쟁취하고 그 자유가 인간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추동함으로 산업화도 동시에 이뤄냈던 것이다. 4.19 이후에 군부독재가 계속되었으나 3.1운동과 4.19를 통해 민중의 역량을 성장시킨 한국민은 5.18 광주민주화운동(1980)을 일으켰고 이어서 신군부의 파쇼적 압제 하에서도 6월 혁명운동(1987)을 통해 현행 헌법체제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일제의 제국주의적 압제에 저항하여 민중민주적 역량을 비축해간 한국민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의 행진을 계속했다. 최근의 촛불혁명도 3.1운동의 민중 민주적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3.1운동의 민주적 전통과 관련하여 100주년을 맞아 3.1운동의 역사적 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과제가 있다. 원래 선진들은 ‘3.1혁명’이라고 했다. 이는, 뒤에서 언급할, 대한민국을 열게 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의의를 역사적 용어로 정립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한국사에서 ‘혁명’으로 불러야 할 뚜렷한 역사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운동’으로 그냥 부를 것인지, 100주년을 맞아 숙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 3.1운동은 1차 세계대전 후 강대국 중심으로 재편된 베르사유 체제에 저항한 약소민족 최초의 운동이었다. 베르사유 체제는 1차 대전 후 전승국 중심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한 또 하나의 제국주의 질서였다. 이 때 3·1운동은 전승국 일제에 항거함으로, 일제도 전승국의 하나로서 참여하여 누리려고 한 베르사유 체제에 도전했던 것이다. 피압박민족으로서 침략·강권 중심의 세계 질서에 최초로 항거한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 3·1운동은 세계 피압박 민족들이 그들의 해방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효시가 되었다. 그렇다면 3.1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어떻게 확산 심화시켜 세계사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또한 3.1운동 100주년의 과제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 2. ‘대한민국 100년’ 확정화의 문제

3.1운동의 민중 민주화의 의미는 양금처럼 남아있던 양반 지배자 중심의 왕조적 질서를 걷어내고 민중에 의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건설케 되었다는 것이다. 1910년 국망 이후 독립운동은 3.1운동 이전에는 일정 부분 옛 왕조를 회복하겠다는 의미의 ‘복벽(復辟)운동’의 성격이 강했다. 그것은 곧 옛 왕조와 양반 중심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양반이 아닌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대한민국을 수립함으로 가능해졌다. 즉 대한민국의 ‘민국’은, 조선 ‘왕조’의 왕이나 대한 ‘제국’의 황제가 아닌, 민중이 주인되는 나라였다. 그 점에서 대한민국의 수립은 국가의 복벽적 성격을 극복하고 백성이 나라주인임을 담보하는 것이었다.

주권이 황제에게서 인민에게 넘어갔다는 사상은 3.1운동 이전의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이미 표명된 바 있다. 대동단결선언(1917)에서다. 대동단결선언은 대한제국이 포기한 주권은 인민에게 전수되었다고 주장하고, “저 황제권 소멸의 때가 곧 민권 발생의 때요, 구한국 최후의 날은 곧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라고 천명했다. 1910년 8월 29일의 융희(隆熙) 황제가 포기한 주권은 국민에게 상속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다. 「대동단결선언」에 이어 「대한독립선언서」(1919.2)와 「2·8 독립선언」(1919.2) 역시 독립운동으로 건립될 국가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신국가임을 명시했으며, 3.1독립선언에서도 새로 세울 나라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民主)’의 나라임을 분명히 했다.

「3.1독립선언」의 결과는 1919년 4월 1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나라의 수립으로 나타났다. 과거 황제의 나라였던 ‘대한제국’은 ‘백성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선진들은 이러한 투철한 역사의식을 반영하여 ‘3.1운동’을 ‘3.1혁명’이라 불렀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중(인민)의 나라’, ‘민주공화국’은 3.1운동에서 독립을 선언하면서 추구했던 이상이었다. 3.1운동의 민족지도자 이승훈 등은 재판과정에서,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했느냐는 일제 재판관의 질문에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3.1독립선언을 통해 시도한 민주공화정 이념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나타났다. 이어서 ‘대한민국’ 선포 당일 10개조로 요약된 ‘대한민국 임시헌장’도 발표했는데, 그 제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규정했던 것이다. 이것은 또한 같은 해 4월 23일에 한성정부 국민대회에서 채택한 ‘한성정부 국민대회 약법’ 제 1조에 “국체는 민주제를 채용함”, 제 2조 “정체는 대의제를 채용함”이라는 데서도 나타났다. 3.1운동 후에 이 땅에서 양반지도자 대신 평민지도자가 민족운동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것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연해주, 상해, 한성에서 건립된 임시정부는 안창호와 여러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하나로 통합되었다. 1919년 9월 상해에서 대통령제의 통합임시정부가 재출발하게 되었다. 1932년 4월 윤봉길 의거 후 임시정부는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1940년 중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 동안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예하에 두고 이당치국(以黨治國)의 좌우합작 연립정부로 발전하게 되었다. 대통령제의 정제도 국무령제를 거쳐 주석제로 바뀌었다. 이러한 전통 위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승만이 이끄는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전문에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거기서부터 계승되었기 때문에 1948년 정부수립의 해는 대한민국 30년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이제 2019년에는 대한민국이 100주년이 됨을 정확하게 역사화해야 할 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건국절’ 문제를 제기한 이래 계속되어온 대한민국 수립 시점의 논란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권이 건국절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는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혼용해 왔다. 1941년에 임정에서 발표한 <건국강령>, 여운형의 <건국동맹>이나 <건국준비위원회>, 김구의 <건국실천원양성소>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919년 이후에도 ‘건국’을 목표로 하는 여러 문구들이 보인다. 1919년의 대한민국 수립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국토를 완전 회복하고 한국에게 국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는 그 날을 염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도, 그 시대를 전공하는 후배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한국사연표>에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을 선포(하지, 미군정폐지 발표)”라고 썼다. 김대중 대통령도 1998년을 ‘건국 50주년’이라 썼고, 노무현 대통령도 해방 3년 후에 “민주공화국을 세웠다”고 언명했다. 이렇게 된 것은 1948년 정부 수립 당시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논쟁했는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또 그 논쟁의 결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구절이 들어있음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혼용된 인식이 2008년 ‘건국절’ 문제를 계기로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구분하려는 역사인식으로 본격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국정교과서에서 1948년 8월 15일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의 문제로까지 발전되었다.

2019년은 대한민국이 100주년 됨을 확실히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 동안 국사학계가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들과 협력하여 ‘건국절’ 문제는 진화된 듯하나, 1919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계승되고 있다는 주장은 확실하게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연구가 필요하고 일종의 국민적 공감대 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대한제국-대한민국 임시정부-대한민국 정부로 이어지는 역사인식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사학계를 비롯한 국내학계의 내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성립과 존재를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하며 대외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인지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1919년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적 운동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운동의 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 정착시키기 위해 민관합동의 <대한민국 100년 위원회>를 설립하여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으면 한다.

### 3 기념사업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해야 할 사업이 많다. 이른바 ‘100주년 기념사업’이라 할 것이다. 흔히 세계사에서 보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100주년에 이룩한 기념물들은 그 역사적 사건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가령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맞아 건립한 파리의 <에펠탑>이나, 미국의 건국 100주년을 맞아 프랑스가 선물하여 조성한

<자유의 여신상>은 세계적 명물이 되었다. 이들 기념물들은 비단 프랑스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로부터 인간의 자유와, 인류의 진보를 위한 혁명의 상징으로 길이 사랑받고 있다.

#### [3.1운동 기념사업]

먼저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이다. 학문적인 사업으로서는 3.1운동의 인물을 제대로 조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적게는 200만 많게는 1천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이들이 중복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숫자는 그 보다 줄어들 것이다. 이들 참여자들과 관련, 3.1운동 점화를 주도한 33인 내지는 48인과, 그 운동에 참여하여 투옥 내지는 실형을 받은 인물에 대해서는 재판 기록 등 어느 정도의 파악이 가능하지만, 당시 그 운동에 참가한 일반 민중들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되지 않는다. 물론 그들은 투옥되거나 실형을 받지 않아서 관련 기록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래도 그 지방과 가족들 사이에서 전승되는 것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늦었지만 참여자들에 대한 전수(全數)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는 지방지, 지방의 종교단체 역사, 가족사 및 구전을 통해서 그 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와 함께 전국에 산재한 3.1운동 유적에 대한 조사와 기념비 건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동안 웬만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1운동 유적지에 대한 기념비 혹은 기념탑 건립에 힘써 왔지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곳이 있다. 이것은 국가보훈처나 독립기념관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인 기준에서 발굴 조사하여, 기념탑이거나 기념비라도 세워 후세에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100주년을 맞아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국가적인 의무라고 본다.

3.1운동이 독립운동의 관점에서나 민주주의 발전의 관점에서 한국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3.1운동의 발상지라고 해야 할 장소에 의당 전국적인 규모의 기념탑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그런 기념탑을 갖지 못했다. 서울의 파고다 공원이 그 발상지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곳은 다른 중요한 유적 때문에 건립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의 지혜를 짜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정녕 그곳이 불가능하다면 남산 어느 곳에라도, 한국의 근대민족을 탄생시킨, 이 상징적인 사건의 기념물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기념탑에는 3.1혁명 관련 각종 자료들이 비치되어야 하며, 3.1독립선언문은 물론 우리 민족사와 세계사에 미친 영향을 밝히는 글도 벽면 등에 부조되어야 하며, 참여한 선진들의 명단과 만세운동의 각종 활동상도 부조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또 꺼지지 않는 혁명의 봉화도 갖춰져야 한다고 본다.

3.1운동 기념물과 관련, 조성해야 할 것이 있다. <3.1운동 만세길>이다. 이것은 의식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기관 등이 중심이 되어 <3.1운동 만세길>을 만들어 명명도 하고 교육장으로 만드는 것도 100주년을 맞아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위한 기념사업]

3.1운동 관련 기념사업과 함께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위한 기념사업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임시정부를 위해 해 놓은 것이 거의 없다. 기껏 김영삼 정부 때에 상해에 있는 독립운동가 묘지 몇 기를 국립묘지에 이장한 것 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다. 중국의 여러 도시에 건립되어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한국에는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필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비롯하여 그 기념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필자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주장해 왔다. 그 때 주장한 몇 가지를 다시 거론하겠다.

첫째, 김영삼 정부가 조선총독부 건물을 허물 때 필자는 그 자리(경복궁 근정전과 광화문 사이)에 독립운동가 묘지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조화시켜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운동가 묘지공원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새긴 화강암 판석과 그 밑에 유골을 넣도록 하며 공원전체는 잔디로 덮어 공원화하자는 것이었다. 그 공간이면 수만 기를 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판석에 적힌 독립운동가들을 되새기며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경복궁으로 상징되는 조선왕조가 독립운동을 거쳐 광화문 앞의 정부종합청사로 이어지는 역사적 계승성이 이런 건물의 배치를 통해 조화된다

고 보았다. 즉 경복궁(조선왕조)→독립운동가 묘지공원과 임시정부(일제 강점기)→정부종합청사(대한민국)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런 배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당시 관학자들에 의해서 무시되고 말았다.

무덤공원과 함께 조화롭게 건립된 임시정부 기념관은 거기에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에 대한 각종 자료를 비치하고 연구시설을 병립하여 명실공히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의 메카가 되도록 하자하는 것도 그런 구상 속에 들어 있었다.

둘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이다. 이 또한 오래 전부터 필자가 주장해온 것으로, 독립운동가들의 개별적인 기념관을 건립하기에 앞서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범기념관을 건립할 때에도 그 앞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먼저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는 데는 임시정부보다는 백범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이유로 백범기념관 건립에 방점을 찍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주장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헌법 전문에 임정 법통계승이 천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념관을 건립하지 못한 것은 이승만 정권이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임시정부를 홀대한 이후 군사정권은 물론 민간 정부에서도 임정에 대한 역사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것마저 친일파의 농간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거기에는 일정하게 독립운동가 및 역사학자들의 책임도 있다.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다. 중국 현장에 몇 개의 임정 기념관이 있는데도 정작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없다는 것은 역사외식이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임정기념관 건립과 함께 병행하여 그 속에 담아야 할 내용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임정의 자료수집과 임시정부사의 연구다. 앞으로 남북이 정통성 문제를 다루게 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임정의 자료수집과 연구는 불가피하다. 북에서는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일제 강점기의 항일빨치산운동에 두고 있으며 임정과 관계는 무시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우리가 임정의 정통성을 잇는다는 것은 이렇게 국가적 정통성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앞서 <대한민국 100년 위원회>를 만들어 준비하자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임정기념관’을 건립하는 문제와 관련,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다. 기념관을 만들어 전시와 교육 등에 역점을 둘 뿐만 아니라 연구에 더 역점을 두도록



기념관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특히 자료수집과 관련, 필자는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60권을 기획, 그 중 53권을 편찬케 한 바가 있다. 또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가 시도한 바 있듯이, 아직도 프랑스 낭트의 고문서관에는 상해 조계지에서 생산한 임정 관련 많은 문서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자료들과 함께 중국과 대만 여러 당안관에 보관되어 있는 임정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이 임정기념관 건립을 계기로 본격화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정기념관 건립은 건물을 세우는 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기념관 건립을 계기로 임정동산을 조성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임정동산은 지리적으로 기념관 근처에 조성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임정요인을 배출한 바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지방에라도 임정동산을 조성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부하 검사로부터 기소 1호를 당한 부끄러운 친일검사



최 광 응  
데이터정책연구소 소장

검찰 현대사는 올해로 환갑을 두 번이나 지난 122년을 맞았다. 갑오개혁 이후 처음으로 '검사'라는 관직명을 등장시킨 건 고종 32년(1895년) 3월25일, 즉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을 제정·반포하면서이다. 과거 감사 또는 군수가 맡아오던 행정관 재판관을 재판사무전담기관을 창설하여 인권 침해의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도록 한 입법이였다. 지방재판소·개항시장재판소(인천 등)·순회재판소·고등재판소·특별법원 등 5종 2심제를 채택했고 한성재판소는 별도로 설치됐다. 당시 검사는 신분이 독립돼있지 않았고 재판소 직원으로서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행사했다.

고종은 같은 날 칙령 49호인 「법관양성소규정」도 동시에 반포했는데, 법관양성소는 고등재판소 부설이었다. 1기는 6개월 과정을 47명이 수료했으며, 3대 부통령을 지낸 함태영이

수석을 차지했다. 그는 경기재판소 판사 등으로 근무하며 독립운동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로 파면과 복직을 반복한다. 3·1운동에 참여한 민족대표의 한 사람이었으며 출옥 이후 기독교 목사가 되어 종교운동에 힘썼다. 대종교 간부로서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부장을 역임한 조완구 역시 1기 수료생이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이준 열사다. 고종 33년(1896년) 2월 한성재판소 검사 시보가 된 이준은 토지를 강탈한 관리들에게 징역 10년 형을 서슴없이 구형하는 등 엄격한 법집행으로 임명 33일 만에 파면을 당하고 만다. 이후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귀국한 후 독립협회 및 비밀결사 개혁당을 거쳐 헌정연구회와 국민교육회 등 왕성한 계몽활동에 앞장섰다. 이에 위협을 느낀 친일파 송병준, 이완용 등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준을 회유·견제하는 방법으로 평리원(옛 고등재판소) 검사를 제안했고, 그들의 의도를 간파한 이준 역시 1906년 6월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심정으로 이를 받아들인다.

평리원 검사로 특별 채용된 이준은 군수, 서리, 순검 등의 비위를 적극 처벌하거나 관직의 권세를 빌어 양민을 핍박한 자들을 특별히 엄하게 다스렸다. 1907년 2월 초 이준 검사는 법무 형사국장 김낙헌을 기소한다. 죄목은 고종 황제의 대사면조치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석방할 대상과 석방하지 않을 대상을 임의로 구분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1906년 10월 황태자의 재혼가례기념 기념 대사면령이 시달되었는데,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낙헌은 흉악범을 석방 또는 감형한 반면에 을사오적을 처단하려다 체포돼 복역 중이던 나인영, 오기호 등 정치범 석방을 거절했다는 이유였다. 즉 이준은 사면대상자 명단 작성은 검사인 자신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결국 현직 검사가 법부의 사법기관을 기소하고 탄핵한 근대 사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송병준, 이용구 등이 이끌던 친일단체 일진회는 평리원을 움직여 이준에게 태형 70대와 파면 선고를 내리게 압력을 가했지만 고종 황제가 이를 알고 파면을 불허했으며, 이준 검사는 매를 맞고도 다음 날 태연하게 출근해 반대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이후 '검사 이준'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법무대신 이하영과 평리원 재판장 이윤용을 고발 조치하고 공개 재판에서 그 죄상을 준엄하게 꾸짖었으나 법관의 체면을 훼손하였다는 명목으로 마침내 면직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내용들은 1946년 7월 13일과 1960년 7월 14일 동아일보에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래도 이 사건 직후 고종은 이준의 강직함과 국제법 조예에 주목해 1907년 4월 18일자로

이상설·이위종과 함께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특사 밀명을 내린다. 이준은 나흘 뒤 부산을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와 시베리아 및 페테르부르크, 베를린 등을 경유해 6월 25일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던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했지만 일본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7월 14일에 순국했다. 밀사사건을 트집 잡은 일제는 1907년 7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법령제정권, 관리임명권, 행정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미7조약'을 체결·조인한다. 그 후속조치로 그 해 12월 일제의 사법권 쟁취에 목적을 둔 「재판소구성법」과 「재판소설치법」이 공포된다.

한편 이처럼 말단 검사로부터 기소와 탄핵을 당한 대한제국 법부의 2인자는 바로 김낙헌이다. 검찰 122년 역사에서 매우 보기 드문 일이지만 검사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 오늘날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다. 김낙헌은 1895년 4월 법무 주사로 임명돼 검찰과 처음 인연을 맺는다. 이후 1897년 법무 검사를 거쳐 1901년 평리원 검사와 1902년 평리원 판사, 1904년 법무 참서관 및 법률기초위원으로 승승장구한다. 이 과정에서 1900년 형법 교정관으로 임명돼 법무대신 김가진을 도와 1905년까지 <형법대전> 편찬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1905년에는 법관양성소장 겸 법무 형사국장, 1906년에는 법관양성소 소장 겸 부동산법 조사위원, 1907년 재판소구성법 및 부속법령심사위원, 1908년 변호사시험위원장 겸 법전조사국 위원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쳤다.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을사늑약 체결 이듬해 3월 2일 서울에 도착, 1주일 후 초대 조선통감 자격으로 고종 황제를 알현하고 공식 업무를 개시한다. 이토는 토지제도 조사와 법률 근대화라는 미명 아래 도쿄제대 법대교수인 우메 겐지로(梅謙次郎)를 초빙했다. 우메는 당시 일본의 현직 판사와 검사 가운데 법무보좌관 등 20여명을 선별해 조선으로 불러온 인물이다. 우메는 우선 형사재판제도를 3심제로 개선해 근대적 재판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운용했다. 이어서 조선의 근대적 토지법제 확립을 위해 부동산법조사회를 설치해 물권변동에 관한 관습 및 조사를 실시했다. 나아가 민법과 형법 등 기본적인 법전 편찬사업을 법전조사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처럼 김낙헌의 왕성한 활동 시기는 바로 을사늑약, 대한제국 군대해산, 한일병탄 등과 관련하여 의병 활동이 매우 한창이던 때였다. 그러므로 일본 제국주의가 이토 히로부미를 앞장세워 조선침략을 노골화하며 사법권 장악을 시도했기 때문에 조선인 협력자가 필요했는데 바로 김낙헌이 그 장본인이었다. 우메 겐지로가 주도한 1906년 부동산법 제정 사업과 1908년 법전조사국의 관습조사사업은 이토 통감부의 조선 보호국화 정책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었다. 김낙헌은 이 사업에 법무 형사국장의 자격으로 다양한 위원회의 위원을 맡아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또한 김낙헌은 1909년 경성공소원 검사로 재직하면서 김수민·정용대·이교영·심경섭·김춘삼 등 의병 재판에 참여해 이들의 교수형 선고에 관여했다. 1910년 한일병탄조약 체결 이듬해에는 총독부 산하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됐는데 조선인 최초였다. 이후 그는 1918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에 임명될 때까지 판사로 재직했다. 김낙헌은 일본 정부로부터 1910년 한일병탄조약 근로은사금으로 3천원을 받았으며, 1912년 병합기념장과 1915년 다이쇼(大正) 대례기념장을 각각 수여받은 바 있다.

김낙헌은 2006년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일제강점기 초기의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이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명단에서 중추원 및 사법 부문에 모두 선정된 바 있다. <뉴스타파>가 2015년 8월 15일 해방 70년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기획 프로그램인 ‘친일파 망각’에서 김낙헌의 증손자 김경근(목사)은 공개 인터뷰에 응한 단 3명의 친일파 후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자신은 공인이나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서 조상을 대신해 사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선대가 했던 잘못된 행위라고 하지만 그걸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게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을 못하겠다.”라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 최고 권력기관인 검찰에는 조선인이 혼치 않았다. 특히 악명을 떨치며 의병과 독립 운동기를 탄압하는 등 일제의 주구로 적극 나선 조선인 검사는 그 숫자가 손에 꼽을 정도이다. 하지만 이준 검사처럼 기개를 앞세워 민족과 양민을 돌본 경우도 없진 않았다. 지난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한 윤석열 검사도 드물지만 같은 경우이다. 윤석열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의혹적인 수사를 한 탓에 한직인 고검 검사로 전전했다. 특히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 지검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으며 그해 가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무부 등 상관의 외압을 폭로하고 징계를 받았다. 따라서 윤석열 지검장이 바로 현대판 이준 검사다. 7월 14일은 이준 열사의 110주기 순국일이다. 이제 이준 하면 떠올리는 피가 끓는 ‘정의로운 법률가’이다. 검찰개혁의 표상이다. 

# 담양의 한말 의병과 독립운동



최형식  
담양군수

## I. 들어가는 말

“호남은 국가의 보루이다.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湖南國家之保障 若無湖南是無國家

보통 임진왜란 시기 호남 의병과 한말 의병전쟁, 독립운동을 이야기 할 때 위 문장을 자주 인용한다. 그만큼 국난극복과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키는데 호남 의병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2018년이면 ‘담양(潭陽)’이라는 지명을 갖게 된 지 꼭 1000년이 된다. 담양은 대나무의 고장(竹鄕)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담양 천년의 역사를 면면히 살펴보면 문학의 고장(文鄕)이자 의향(義鄕)의 고장이다.



조선 중기 소쇄원과 식영정, 송강정, 면앙정을 중심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상을 우리말과 우리글로 표현한 국문학 장르인 가사(歌辭)의 대표적인 작품인 송순의 면앙정가(倂仰亭歌)와 송강 정철의 성산별곡(星山別曲)·사미인곡(思美人曲)·속미인곡(續美人曲) 등이 창작되어진 곳이 담양이다.

또한 호남의병의 항쟁을 촉발시킨 것이 고경명 의병이었으며, 이 고경명 의병이 담양 추성관에서 창의함으로써 담양의 호남의병, 더 나아가 임란의병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서양 제국주의 세력과 일제의 무력에 유린된 국권을 수호하고자 일어난 한말의 구국운동은 석전 이최선 집안의 위정척사운동과 녹천 고광순·김태원 등의 의병전쟁, 춘강 고정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신교육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담양은 의(義)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호남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인 ‘대의(大義)를 위한 희생’을 들 수 있다면 담양은 이러한 호남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지역인 것이다. 여기서는 한말에 담양에서 진행되었던 다양한 독립운동을 대표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알리고자 한다.

## II. 한말 담양 독립운동의 전개

### 1. 석전 이최선 집안의 의병운동

우리나라 역사상 의병의 봉기는 외침과 관련이 깊다. 조선 중기 임란과 호란 그리고 조선말 서구 제국주의와 일본이 침략했을 때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의병이 일어났다.

조선말 의병은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략한 1866년 병인양요 때 처음으로 봉기하는데, 전라도에서는 장성의 노사 기정진이 외세를 방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상소를 올리며 위정척사운동의 불을 지폈다. 이후 기정진의 제자들은 스승의 뒤를 이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석전 이최선이 대표적이다.

석전 이최선(石田 李最善, 1825~1883)은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출신의 전주이씨로서 양녕대군 이제(李禔)의 16대손이다. 그는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전라도 지역에 거주하는 전주이씨들에게 전주이씨가 종성(宗姓)이므로 국가적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당연히 의병



석전 이최선 집안 영서당(迎瑞堂)

에 나서야 한다는 종성구국론(宗姓救國論)을 주장하였으며, 실제 참여한 이들을 중심으로 동의계(同義契)를 조직하였다. 그가 의병을 이끌고 서울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프랑스군은 퇴각한 이후로 실제로 전투를 벌이지 않았으나, 위정척사운동을 의병운동으로 실천에 옮긴 것은 주목할 만하다.

청고 이승학(靑臯 李承鶴, 1857~1928)은 이최선의 아들로, 을미사변(1895)이 일어나자 송사 기우만과 함께 장성의병에 참여하여 의병봉기 계획 수립과 격문을 작성하는 임무를 부여받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나 왕의 명령으로 광주회맹이 무산되자 군대를 해산하고 말았다.

옥산 이광수(玉山 李光秀, 1873~1953)은 이최선의 손자이자 이승학의 아들이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우국지사들은 을사5적의 매국적 행위를 규탄하고 더 나아가 매국노를





석전 집안의 강학장소 문일정(間一亭)

처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그 가운데 5적암살단을 조직하고 활동한 이가 바로 옥산 이광수이다. 그는 성균관 박사로 활동하다 천도교 양한묵 등과 교유한 이후 계몽운동가로 적극 참여하게 된다. 1907년 을사5적을 처단하기 위한 비밀결사조직인 자신회(自新會)의 핵심인물로 활동하였으나 실패하고 체포되어 유배 10년형을 받았으나 그해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된다. 1907년 정미의소(丁未擬疏)를 통해 대한제국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호남학회(湖南學會)에 가담하여 인재육성에 나서기도 하였다.

## 2. 녹천 고광순의 의병전쟁

1907년 이후 약 2년여 동안 의병전쟁은 가장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일제가 고종의 강제퇴위(7. 19), 한일신협약(7. 24) 그리고 군대의 해산(8. 1) 등을 단행하여 대한제국의 주권을 유

린하자 해산된 군인을 중심으로 의병군대를 결성하여 전국 곳곳에서 의병전쟁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 담양지역에서 크게 활동한 인물이 녹천 고광순(鹿川 高光洵, 1848~1907)이다. 고광순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인 제봉 고경명의 현손으로 가풍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절의정신이 남달리 투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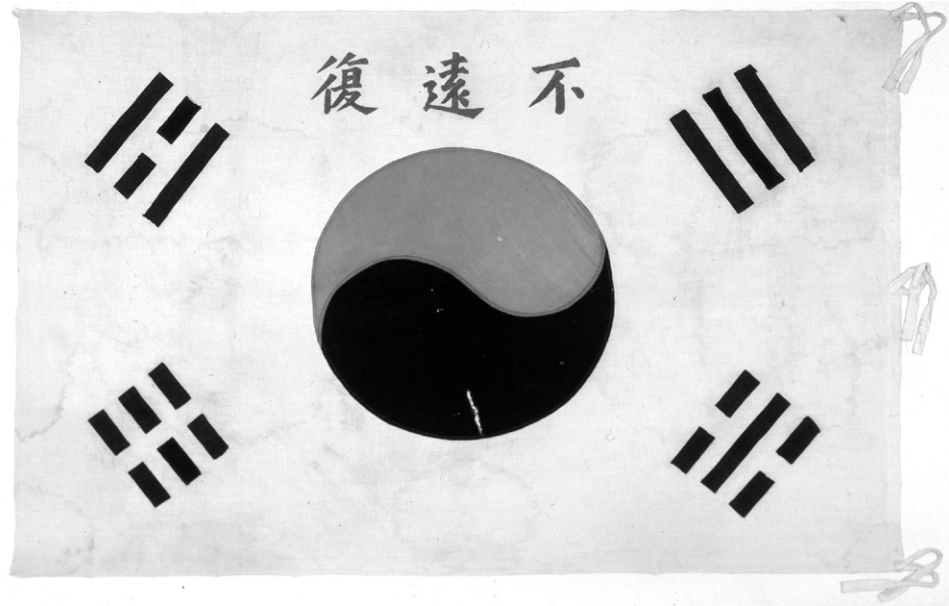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고광순은 국왕에게 상소를 올려 “국사를 그르친 괴수를 죽여 국법을 밝히고 나라를 망치는 왜적을 빨리 물리쳐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을미사변의 원흉들을 단죄할 것을 통렬하게 주장하였다. 단발령이 내려지자 기우만, 기삼연 등 호남 지방 유림들과 연락을 취하고 의병의 규합에 나서 호남의병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1906년 6월 최익현 의병에 합류하고자 하였으나 최익현 의병부대가 이미 출동한 진위대에 체포되고 해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선생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다시 백낙구, 기우만과



포의사(褒義祠)





불원복기(不遠復旗)

함께 구례서 의병을 일으켰다. 고광순은 이들과 함께 군사를 모아 순천을 공략하기로 하였으나 군세가 미약하여 실패하였다.

이 무렵 고광순은 광무황제로부터 비밀리에 의병을 독려하는 「애통조」를 받고 감격하여 스스로 토적복수를 맹세한다. 이에 따라 1907년 1월 고계량 등의 지사들과 함께 장정 5백여 명을 모아 담양에서 의진을 결성하고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양회일, 기삼연 등과 창평, 능주, 동복 등에서 활동하여 '호남의병의 선구자'로 명성을 날렸다. 1907년 9월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던 고광순은 근거지를 마련하여 장기지속의 항전태세를 갖춘다는 '축예지계(畜銳之計)'의 새로운 의병전략을 수립하고 지리산을 근거지



고광순 순절비(지리산 연곡사)

로 택하였다. 이에 고광순은 의진의 도독으로 남원에서 곡성, 광양, 구례를 거쳐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고광순은 의진의 본영으로 삼은 지리산 연곡사에 나라를 곧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불원복' (不遠復)이라 쓴 태극기를 세우고 항전의 채비를 갖추었다. 1907년 10월 16일 새벽, 1개 중대와 1개 소대, 순경 등으로 편제된 일제군경은 연곡사를 포위하고 공격을 개시하였다. 최후의 순간을 감지한 선생은 부하들에게 "한번 죽어 나라에 보답하는 것은 내가 평소 마음을 정한 바이다. 여러분은 나를 위해 염려하지 말고 각자 도모하라"고 말하고 결사 항전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였는데 고광순의 나이 60세였다.

담양군에서는 고광순 의병장의 애국애족의 민족정신과 순국선열 정신을 기리기 1970년 그의 고향인 창평면 유천리에 '포의사(褒義祠)'를 건립하였으나, 이후 사당이 낡고 노후되자 2010년 생가 인근에 사당, 유물전시관, 교육관 등이 포함된 '포의사 기념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3. 춘강 고정주의 신교육운동

우리 민족의 신학문에 대한 관심은 을사늑약(1905)의 체결을 계기로 크게 높아졌다. 교육구국운동은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각성을 이루려는 기대 속에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교육구국운동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 학교가 창평에 건립되고 운영된 영학숙(英學塾)과 창흥의숙(昌興義塾)이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민족의 지도자로서 내로라하는 활동을 전개한 송진우(宋鎭禹, 1890~1945), 김병로(金炳魯, 1888~1964) 등이 이 학교를 거쳤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실마리를 제공한 인물이 바로 춘강 고정주이다.

창평면 삼천리 태어난 춘강 고정주(春崗 高鼎柱, 1863~1933)는 제봉 고정명의 후손으로 1885년에 식년시를 합격하고 1891년에는 문과에 합격하여 승정원 주서, 홍문관 시독, 규장각 직각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변에서는 그의 벼슬에서 따와 '고직각(高直閣)'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영학숙 옛터 상월정(문화재자료 제17호)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의 무효와 을사오적 처단을 주장한 상소를 올렸으나 받아



춘강 고정주 생가(전남민속문화재 제42호)

들이지 않자 모든 관직을 사임하고 1907년 7월 호남지역의 교육 진흥을 위해 호남학회(湖南學會)를 창립하여 회장이 되고 애국계몽운동의 선구 단체가 되고자 하였으나 국내정세와 맞물려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지 못한 채 고향인 창평으로 낙향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인재를 길러 실력을 양성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두 개의 신학문 학교를 세웠으니 앞에서 언급한 영학숙(英學塾)과 창흥의숙(昌興義塾)이다.

영학숙은 외국유학을 준비하는 예비영어학교로 서울에서 이표(李瀾)라는 교사를 초빙하여 영어는 물론 수학, 역사, 지리까지 가르쳤으며, 그의 아들 광준과 친구의 아들 송진우 등이 이곳에서 공부했으나 1년을 버티지 못했다.

창흥의숙은 당시 창평군의 객사인 용주관(龍州館)을 학교 건물로 사용하였으며, 순창출신 김병로를 비롯하여 박석운, 그의 손자인 고재욱 등이 이 학교 출신이다. 1909년 4월 창흥학교, 1911년 창평보통학교로 발전하였다. 현재 창평초등학교의 전신이다.

고정주는 구학(舊學)의 바탕 위에 신학문의 조화를 강조함으로써 전통과 시무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였고, 걸출한 민족의 지도자인 김병로·송진우 등을 배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영학숙 옛터 상월정(문화재자료 제17호)

그를 호남지역 근대교육의 선각자라 하더라도 전혀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 4. 고하 송진우의 민족주의운동

고하 송진우 고택(문화재자료 제260호)

고하 송진우(古下 宋鎭禹, 1889~1945)는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의병장 성재 기삼연으로부터 한학을 배웠고 창평의 영학숙에서 근대학문을 수학한 인물이었다.

그는 1908년 일본으로 건너가 1915년에 메이지(明治)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바로 귀국하여 당시 경영난에 빠져 있던 중앙학교를 인수, 교감을 거쳐 1918년 3월에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송진우의 관리 아래 중앙학교의 교육은 민족교육을 관철했으며 수많은 애국적 청소년들을 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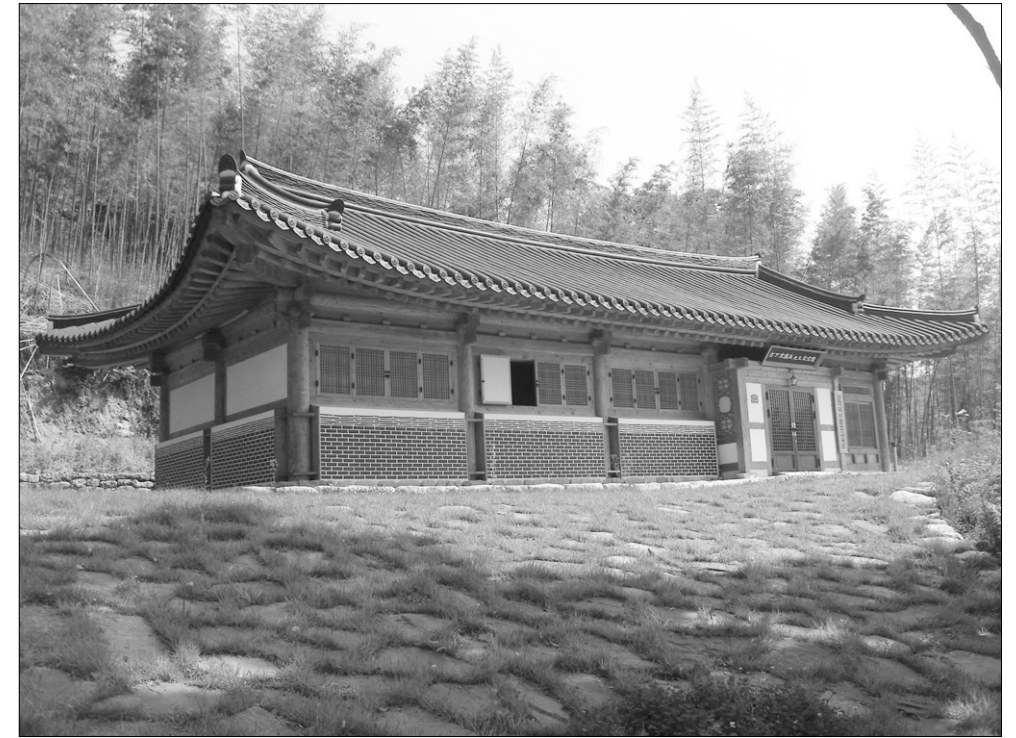




고하 송진우 고택(문화재자료 제260호)

1919년 1월 동경 유학생 송계백(宋繼白)이 2·8독립선언 준비차 귀국하여 송진우를 만난 것을 계기로 하여 송진우·현상윤(玄相允)·최린(崔麟)·최남선(崔南善) 등이 빈번히 회합을 열고 초기의 3·1운동을 기획하기 시작했으며 송진우는 천도교측과 기독교측의 연합을 주선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3·1운동이 일어난 후 이 운동을 초기에 기획한 48인의 하나로 지목되어 일제 경찰에 피체되어 서대문감옥에 구금되었다.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1년 6개월간의 옥고를 겪었다.

1921년 9월 동아일보(東亞日報)가 「주식회사 동아일보」로 개편되자 제3대 사장에 취임하였다. 이후 조선민립대학 설립 발기인과 중앙집행위원 참여는 물론 일제의 언론 탄압행위에 대하여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특히 1927년 10월 제6대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했으나 1936년 8월 베를린 올림픽대회의 마라톤에서 손기정(孫基禎) 선수가 우승하자 동아일보가 손기정선수의 우승사진을 게재하면서 손선수의 앞가슴에 붙인 일장기를 지우고 실은 「일장기 말소사건」이 문제가 되자 동아일보는 제4차 무기정간을



고하송진우선생 교육관(생가 옆)

당하고 그도 사장을 사임하였다.

고하는 3·1운동 이후 일제가 펼친 문화주의 정책에 따라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항일 민족주의 노선을 견지한다. 정규의 언론인 동아일보를 경영한다는 것은 항일투쟁의 선명성 측면에서는 명백히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진우는 항일 의지를 북돋우는 기사를 실음은 물론, 일제의 치밀한 언론 탄압에 직간접으로 저항하여 민립대학설립운동, 브나르드 운동 등의 사회문화 운동을 펼치면서 민족주의 언론의 자세를 견지했다.

### Ⅲ. 나가는 말

담양을 대표하는 한말의 의병장, 독립운동가가 누구냐고 묻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글에서 굳이 4명의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한 것은 담양지역에서 펼쳐진 한말의 의병과 독립운동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함일 뿐이다.

먼저, 한말의 양반(석전 이최선)을 중심으로 한 위정척사운동이 먼저 전개되나 1895년 을미사변을 전후하여 민중렬, 고광순, 김태원, 추기엽 등 의병전쟁이 활발하게 꾸준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담양만의 독자적인 의병보다는 인근 지역과 연합적인 의병의 일으키려는 시도가 많았으나 성공을 거둔 의병부대는 없었다는 것이다. 담양지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의병을 시도한 담양군수 민중렬과 유생 구상순을 제외하고는 고광순과 이승학을 중심으로 한 장성의병 연대, 고광순의 최익현 의병(태인의병) 합류 시도 등을 통해 세력화를 꾀하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다.

세 번째는 개화사상과 계몽운동을 접목한 근대교육운동을 통한 민족주의 운동의 전개를 들 수 있다. 옥산 이광수를 비롯해 호남 근대교육의 선각자로 인정받고 있는 춘강 고정주와 이들의 제자 김병로, 송진우 등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 민족 지도자로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게 된다.

담양지역에는 이들 한말 의병과 독립운동과 관련된 유적이 상당히 풍부한 편이다. 동학전쟁과 한말의병 투쟁이 활발하였던 금성산성(金城山城, 사적 제353호), 석전 이최선 집안의 영서당(迎瑞堂)과 문일정(聞一亭), 영학숙의 터 상월정(上月亭), 포의사, 춘강 고정주 생가, 고하 송진우 고택 등 다양한 형태로 유적이 남아있고 일부는 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앞으로 한말 의병장 및 독립운동가에 대한 선양 사업은 물론 유적의 보존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김예진 목사의 아들 김동수 교수를 만나다

- 백범 김구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소년의 기억,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가 가야 할 길



右로부터 김자동 회장, 김동수 교수, 부인 백하나 교수

2017년 4월 2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사무실을 방문한 노신사 손님. 김예진 목사 기념사업회의 총무이사이자 김예진 목사의 막내아들 김동수 교수가 부인과 더불어 맑은 웃음을 안고 본 사업회 김자동 회장님을 예방한 것이다. 그는 오랜 동안 미국 생활을 하다 은퇴 후 고국으로 돌아와 몇 년을 더 가르치다 지금은 정식 직장이나 집도 없는 자신은 미국에 있는 집도 교수직도 모두 정리하여 지금은 “홈리스”다 라고 농담을 하며 허연 수염 아래 익살스러운 젊은 웃음을 잔뜩 띠었다.



## 김예진 목사는 누구인가?

우리는 1910년 치욕스러운 한일 강제합병의 날부터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심신을 불사르며 헌신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알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김예진 목사는 그런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중 한 분이었다.

김예진 목사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하자 김동수 교수는 “부친 생전에는 내가 어려서 깊이 소통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 내가 모친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다 기억할 수 없어 제대로 소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웃으며 말하였다. 그러면서 본 기념사업회 소장 책 한권 (김예진, 그의 생애와 사상 (쿤란출판사, 2010))을 찾아 들고 오셔서 연도를 찾아보기도 하며 부친에 대해서 개략적 설명을 해주었다. 평생 독립운동을 한 분들에 비해 김예진은 1928년 말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그리고 7년에 걸친 신학교를 마치고 나서는 계속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못했다고 한다. 계속되는 통신과 여행의 제재, 목회활동의 감시와 예비검속 때문에 일제 말기에는 결국 교회일도 계속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해방 후에는 전국 기독교 복음화운동에 투신하였으나 6.25때 민족주의자이자 기독교 중요인물로 간주되어 인민군에게 체포되어 순교당하였다. 그 후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가 있어서 국내에서 김예진 목사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1919년 3.1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김예진은 평양 숭실대학에 재학중 주모자의 하나로 참여하였다가 당일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 그러던 중 병을 얻어 평양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원들과 연결이 되어서 몰래 상해로 망명하여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되었다. 김예진의 부친 김두연은 이미 상해임정에 군자금을 보내고 있었다. 상해로 망명한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부 한 부서의 서기관으로 임명되었지만 실제로는 당시 그곳으로 찾아온 젊은이들과 함께 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들을 보호, 경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김구 선생의 지령을 받아 1919년 12월 말에 평남 청년단과 결사대 조직을 위해 국내로 다시 잠입했다. 국내로 들어온 그는 여러 조직 활동을 하다 1920년 8월 3일 독립운동가 문일민, 안경신과 함께 평안남도 도청에 폭탄을 투척하는 ‘평안남도투탄의거’를 일으켰다. 그 의거의 계기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다. 당시 많은 미국 국회의원들이 일본에 친선방문하게 되었는데 일제는 자신들이 식민지 조선을 얼

마나 훌륭하게 통치개발 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조선에 초청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가 일제에 얼마나 억압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네 개 도시에서 같은 의거를 계획했던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곳에서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고 평양에서 의거에 성공했던 것이다. 투탄의거 후 무사히 상해로 망명한 김예진은 상해 영국전차회사의 검표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살며 임시정부를 돕다가 결국 1926년 4월 17일 상해 일본총영사관 무관에게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었다. 미결수로 오래 고문을 당하였고 굴함 없는 법정투쟁을 통해서 1928년 말에 가출옥하게 되었다. 비록 자유의 몸이 되었으나 일제 강점기 내내 여러 제약과 감시 속에서 숨은 투쟁을 계속해왔다.

“아버지는 16살에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1919년 3.1만세운동 때부터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된 거죠. 기독교인이 독립운동을 한 경우는 많은데 목사가 독립운동을 한 것은, 그것도 김구 선생 밑에서 무력 투쟁 활동을 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버지는 16살에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1919년 3.1만세운동 때부터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된 거죠. 수많은 기독교인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지만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김구 선생 밑에서 무력 투쟁 활동을 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김동수 교수는 이러한 김예진 목사의 애국투쟁활동이 그의 신앙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김예진 목사는 진정한 신앙인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마련이라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에는 자기 안전이나 편한 방법에만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방 후 그는 전국 복음화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다가 결국 6.25때 공산당에게 잡혀 순교한 김예진 목사이다. 그는 1962년에 국가로부터 건국공로단장을 받아 공훈 애국지사 가 된 되었고 그의 영정이 서울 국립현충원 애국지사묘지에 안치되어 있다. 그는 순교자이면서 항일혁명 투쟁가라는 두 가지 영예를 겸비한 흔히 보기 어려운 독립운동가였다.

## 친밀히 지내시던 백범 김구 선생

부친으로부터 김구 선생의 이야기를 늘 들어왔지만, 김동수 교수가 김구 선생을 처음 친히



만난 것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1945년 11월말 중경에서 귀국한 후라고 했다. 선생의 생존 시 가족들과 함께 경교장에 종종 찾아가서 김구 선생을 뵈었다는 김동수 교수는 김구 선생과 김예진 목사는 오래전부터 인간적으로 특별히 친밀하였던 것으로 회고 하였다.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동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절 김예진의 집에서 여러모로 사랑과 도움을 나누었는데, 당시 부인 한도신은 특히 김구선생 부인 최준례와 사별한 후 홀로 어렵게 살고 계시던 선생을 자주 대접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김예진의 집안과 가까운 사이가 된 김구 선생은 둘째 딸 김재명을 매우 예뻐하여 “양딸”로 삼았다고 한다.

“우리 두 번째 누님이 김구 선생의 양딸이에요. 법적으로 양녀로 삼은 것은 아니고, 김구 선생이 김인, 김신, 아들만 두 명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해에서 우리 집에 오시면 네다섯 살 된 누님을 껴안고 귀여워하시며 ‘너 내 딸 하자, 너 내 딸 하자’ 하시고 딸처럼 대하셨어대요. 그래서 1949년 6월 26일 선생께서 돌아가셨을 때 누님은 머리를 풀고 그 집 며느리들과 여상주 노릇을 하며 딸 노릇을 했지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입양을 해서 양딸이 아니라 딸로 여기시고 딸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자주 김구 선생을 모시고 밥을 같이 먹고, 딸을 김구 선생이 양딸처럼 여기며, 해방 후에는 가족이 함께 경교장에서 김구 선생을 사사로히 만나기도 했던 김예진 목사의 집안. 어린 시절 김구 선생을 “할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김동수 교수. 정말 한국 근현대사에 흔하지 않은 경험을 한 집안일 것이다.

김동수 교수는 또 어렸을 때 김구 선생이 친히 이름을 써준 사진을 갖고 있었다. 김구 선생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김동수 교수와 형제들에게 “나를 기억하라”며 나누어준 것인데 그것을 하마터면 영영 잃어버릴 뻔했다고 했다.

“제 것은 6.25때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집 살림 다 정리하면서 보니 어느 책에 책갈피로 들어있던 거예요.”

김 교수가 67년 만에 찾은 이 의미 깊은 사진은 그가 쓴 팔순 회고록 (하나됨을 위하여, (한울, 2016))에 담겨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순국하시기 며칠 전 김동수 교수가 김구 선생으로부터 받은 사진

### 김동수 교수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김동수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그 당시에 굉장히 사정이 어려웠고 하루 앞길을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는에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오직 나라의 주권회복을 위하여 과감하게 싸운 것은 정말 자랑스럽고 위대한 민족적 투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최근 일부에서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희생적 노력을 폄하하고, 오히려 한국의 해방은 단순히 일제가 연합군에게 패배당한 덕이 아니냐고 보는 견해에 대해 김동수 교수는 의문의 감정을 분명히 보였다. 그런 생각을 가진 대부분의 인물들은 피아픈 우리 민족사에 대해서 아주 무지 내지 무관심하거나, 또는

일제 강점기에 제국주의 통치자들 밑에서 적극적으로 친일행각을 하면서 민족적 항쟁을 배신한 사람들임에 틀림없다고 했다. 그들은, 특히 권력층, 지식층, 부유층은 자신들의 불의한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민족을 배반한 사대주의 기회주의자들이라고 김동수 교수는 분노를 쏟아냈다.

“원래 많은 항일투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접 지시로 또는 연대하거나 관련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여러 형태로, 여러 시기에 계속되었습니다. 일부 좌익계열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항일투쟁의 중심점이었고, 수난을 당하는 온 민족의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여러 영웅적인 애국열사의 개별적 활동이외에 조만 국경지대에서는 크고 작은 게릴라 전투도 있었습니다. 봉오동전투(1920.6.7.), 청산리전투(1920.10.21.-28) 등은 잘 알려진 무력충돌의 승리의 예이겠지요.

1941년 9월 17일에는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설립되고 같은 해 12월 9일

에는 실제 일본과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지요. 상징적인 행위로 보였지만 실제 태평양 전쟁에서 광복군의 일부는 영국군과 함께 인도와 버마지역 전투에 참전하였던 것입니다. 국내외의 많은 애국자들과 단체들이 임시정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군자금을 보냄으로써 항일투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며 30여명으로 시발한 광복군은 태평양전쟁 말기에 1,000명이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뿐인가요? 광복군의 소수 정예부대가 미군 특수전략부대 OSS의 훈련과 지원을 받아 1945년 8월 20일에 한반도에 진입할 비밀작전이 있었답니다. 그 계획이 실현되기 5일전에 일본제국이 연합군에 항복하므로 그 군사작전은 허사가 되고 말았지요. 그러나 모든 역경을 겪으면서 해외에서 26년간이나 계속 항일투쟁을 주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위치와 공헌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세계열강들이 이 망명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종전 이후 한반도 남부를 점령한 미군이 이 임시정부의 권위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친일세력을 기반으로 군정을 실시한 것입니다. 또한 미군정을 바탕으로 1948년 8월 15일 단독정부를 세우고 민족의 영구 분단을 초래하게 만든 친일 송미 사대주의 세력이 계속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에 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전개하여 온 항일투쟁을 별거 없이 그냥 소수의 인사들이 분풀이하는 식으로 했다고 과소평가 하는 행위는 사대주의적 자기비하이며 반민족적 배신이라 할 것입니다.“

김동수 교수는 다가오는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보고 싶다는 강렬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엄연히 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위업을 오래 기리는 기념관 하나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분개하였다. 이 역시 그 동안 친일 사대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탓이라고 안타까워하였다.

김동수 교수는 100주년에 맞추어 기념관을 건립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최소한 기공식이라도 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피력했다. 물론 큰돈이 드는 국가적 사업이니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겠지만 모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일반 국민들도 거족적으로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임정기념관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종찬)는 2년 전부터 이 사업을 힘들게 그러나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김동수 교수는 김

예진 목사 기념사업회를 통하여 이 준비위 사업에 1차 후원금을 보낸바 있다. 이런 후원과 또한 같은 뜻을 가진 많은 후원자들의 성원은 다가올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에 귀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한국의 항일 독립운동을 모르는 미국인들

김동수 교수는 1961년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가 박정희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또한 해외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한국에 돌아올 수 없었다. 그렇게 뜻하지 않게 시작된 450여 년 동안의 긴 미국 생활동안 그는 간혹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고 했다. 특히 모친 한도신은 미국에 함께 있었을 때 그녀의 기억 속에 온전히 남아있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었다고 한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의식 있는 지식인이나 동북아시아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한국의 항일 독립운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 한국 자체에 대해서도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지하였고, 단지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고 북쪽에서 공산군이 쳐들어온 것을 미국이 막아줬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강대국의 패권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같은 강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비록 2차 세계대전 때 적이었지만 “존중할 만한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아시아에서 저지른 잔인한 만행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거나 설령 안다 하더라도 ‘그 시절엔 다 그랬지’ 라는 식으로 덮어주고 있다고 하였다. 지금의 미-중 관계도 그와 유사한 맥락이다. 양국은 서로의 이득관계를 적당히 타협해서 결정하지 한반도의 운명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듯 제국주의적 오만을 행사하는 것이다. 강대국들은 약소국가에게는 주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그래서 약소민족은 더욱 자기의 주권을 옹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결속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수 교수는 이러한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항일 독립운동과 일제의 만행에 대해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제가 지금 우리 부모님의 전기를 영문으로 쓰고 있어요. 이 책에서 부모님의 항일투쟁에 얽힌 어려웠던 생애에 대해서 전기식 이야기로 쓰지만 동시에 일본 군국주의의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열거하고 그들의 잔인하고 참혹한 침략전쟁과 식민지 통치를 실감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미국에서 출판될 예정이고 책이 나오면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국에서도 출판 하려 합니다.”

### 민족정신이 희망이다.

김동수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 사람들이 바른 ‘민족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어떤 개인이나 민족이든 자존감, 주체의식, 민족의 얼과 같은 고귀한 정신적 자산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훌륭한 인간이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만하고 고질적 사대주의 사상에 너무 빠져서 그런 걸 전혀 인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누구나 다 민족정신을 바로 가지도록 노력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동수 교수는 이것을 위해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는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민족정기와 독립사상, 평화통일과 올바른 역사관을 재정립하는” 귀중하고 위대한 민족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의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 고귀한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김동수 교수 자신의 깊은 감사와 경의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리 : 본회 간사

## 신사참배에 맞섰던 여교사 ‘김두석’ 선생님께



심 옥 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장

여성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찾아 나선 어느 날, 저는 빛바랜 책 한권과 만났습니다. ‘여류독립운동가의 수기’로 안내된 책의 표지에는 『두 감나무 고목에 활짝 핀 무궁화』제목이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치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시선이 고정되었지요. 그 때가 선생님과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펼쳐든 첫 페이지의 인사말씀에는 선생님이 24세에 신사참배문제로 교사생활을 그만두었던 내용과 25세 때부터 형무소를 전전하며 감내해야 했던 옥고 생활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소개되어있었습니다.

사실 선생님을 만날 목적으로 마산을 찾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산경남지역 여성독립운동가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부산 일신여학교에서 수학하며 신교육을 받았던 여성들의 다수가 독립운동에 투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흔적을 쫓아가다보니 일신여학교 출신으로 마산 의신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했던 김두석 선생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은 신사참배를 강하게 거부했던 교사로 지역 학생들에게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각인시켰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경찰이 주시하는 자리나 교회의 주말예배가 있는 자리에서도 선생님의 신사참배 거부 의사는 늘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 물론 교회 안에서 하는 동방요배와 일장기 경례도 하지 않았다. 가정에 있는 사람 같으면 혼자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난다. 허나 나는 교사였다 ...

(저자의 글 중에서)

1935년 11월 일제는 전국소재 학교에 신사참배 강요명령을 내린 뒤, 각 학교에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니 각 교육기관에서는 전 학생을 교장과 교사들의 인솔 하에 신사에 데리고 가서 참배를 시켜라'는 고시를 내렸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선교사들은 강제로 추방당했고 거부하는 교사들은 직장을 쫓겨나거나 형무소로 끌려갔습니다. 고문과 투옥이 범람했던 그 시대에 선생님은 외롭고 의로운 길을 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하시며 결코 우상숭배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선생님의 잦은 신사참배거부로 요주의 인물로 주목을 받았고, 결국 1939년 7월 20일 마산 경찰서 출두명령서를 받고서 그들의 심문을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왜 신사참배를 못하는 거요?"라는 질문과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학교를 관두라"는 압력에 선생님은 눈앞에 아른거리는 학생들 생각과 시대의 양심을 앞세우고 교원직을 사임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양친을 여의고 오직 교육에 대한 열의를 쏟으며 교사의 길을 걸었던 선생님이 학교를 떠날 때는 가슴이 찢겨지는 고통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평양여자신학원에 수학하시면서 1940년 5월 17일부터 1941년 7월 30일까지 평양의 신사참배 시위대열에 섰고 다시 체포와 투옥을 반복하면서 5년여 동안 옥중 생활을 하셨습니다.

김두석 선생님! 옥고를 치루는 동안, 강요된 궁성요배를 거부하여 선생님의 손목에는 자주 쇠고랑이 채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절하리만치 춥고 더웠던 좁은 감방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으셨던 선생님. 결국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 출옥하시며 선생님의 올곧음은 빛을 발하셨습니다. 일본에 당당하게 맞서며 뜻을 굽히지 않았던 선생님의 일생을 접하노라면, 오늘날 '옳고 정당한 행동'이 무엇이며 '나라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진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변치 않는 마음처럼 저도 알려지지 않은 여성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정신을 올곧게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심 옥 주 드림

# 전수산 지사를 그리며

## - 다이아몬드헤드 공원묘지에서



이 윤 옥

먼 이국땅서 잠든 그대  
극락조화 한 다발 안고 찾아간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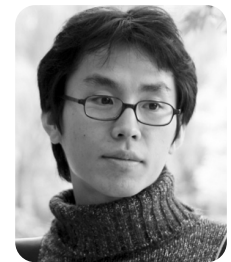
무덤 뒤  
다이아몬드헤드산은 빛났고  
와이키키 바다 바람은  
땀을 간지럽혔다오

어린 딸 옥희를 안고  
하와이땅 밝은 그대





## 영화 <더 플랜>, 의혹과 신뢰의 사이



이 두 희  
자유기고가

억척스레 독립자금 모아  
상해임시정부의 기틀을 잡고  
혈벗은 조국의 애국지사 후손을 도운  
고운 마음 고이 감추고

이제는 지친 몸 마음 모두 내려놓고  
다이아몬드헤드 공원표지에서  
조국의 무궁함을 비는 그대여!

독립의 역사 지워지지 않는 한  
그대의 애국혼 영원하리라!

### 전수산(1898~1969)

전수산 애국지사는 평양 출신으로 진명여학교와 이화학당을 졸업한 수재로 1916년 무렵 하와이로 건너갔다. 1919년 4월 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창립된 하와이 부인단체인 대한부인구제회 회원이 되어 국권회복운동과 독립전쟁에 필요한 후원금을 모아 상하이 임시정부를 돕는데 앞장섰다. 대한부인구제회 회원들은 상하이 임시정부의 독립자금뿐만 아니라 조국의 애국지사 가족들을 위해 구제금을 송금하는 등 조국애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필자는 전수산 애국지사 등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황마리아, 박신애, 심영신 지사의 발자취를 찾아 지난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하와이를 방문했다. 이 이야기는 서간도에 들꽃 피다》7권(7월 출간 예정)에 실릴 예정이다.

### 이윤옥(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문학세계》시 부문 등단. 세계문인협회 정회원. 시집으로는 여성독립운동가를 기리고 있는 『서간도에 들꽃 피다』 전6권, 영문판 한국여성독립운동가 시집 『41 Heroines, flowers of the morning calm』, 『FLOWERING LIBERATION -41 Women Devoted to Korean Independence』 등이 있으며 친일풍자시집 『사쿠라 불나방』과 우리말 속의 일본말 찌꺼기를 다룬 『사쿠라 훈민정음』, 『오염된 국어사전』, 『창씨개명된 우리 풀꽃』, 외 다수.

최진성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더 플랜>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의 개표 부정 의혹을 다루는 영화이다. 영화는 판지일보 등 인터넷 대안 매체를 운영하는 시사평론가 김어준이 기획과 제작을 하였으며, 부정선거라는 엄중한 문제제기와 함께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시의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근간에 관해서, 그리고 진실을 찾는 영화의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영화는 먼저 대통령 선거 개표소 상황을 재연하면서 시작한다. 개표가 시작되고 투표함이 열리면,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다발씩 분류된 표들은 각각 집계, 검열 과정을 거쳐 결과를 공표하게 되어 있었다. <더 플랜>은 이러한 개표 과정에 주목하면서 몇 가지 의혹들을 제기한다. 일부 개표소의 공식적인 발표보다 언론의 보도가 빨랐으며, 개표 전후반 시점에 따라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역전되었다는 점 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영화는 기계가 미분류로 처리한 투표지의 상대 득표율에 특히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이 후 영화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를 심도 있게 파고든다. 개표 과

정에서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의 조작 가능성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밝히고, 19대 대선 미분류표의 득표율이 전체 개표 결과와 크게 어긋나는 점을 근거로 개표 조작의 혐의를 더 해가는 것이다.

영화 <더 플랜>이 다루는 이러한 의혹들은 관객들에게 일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특히 영화는 정상 분류된 투표지와 약 1.5배의 차이가 보이는 미분류표의 박근혜 후보 득표율에 대해서 통계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전체의 부분 집합인 미분류표 역시 전체와 유사한 상대 득표율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분류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또한 영화는 유사한 사례를 다룬 미국의 영화 <Hacking Democracy>(2006)를 인용하며 해킹을 통한 전자 투표기 조작의 사례를 직접 보여주고, 2009년 독일의 헌법 재판소가 전자투표제도를 기어이 폐지한 판결을 소개한다. 그리고 영화의 후반, 제작진은 개표 과정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여 극적인 실험을 진행한다. 투표지분류기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제로 해킹하여, 인위적인 투표지 미분류 작업을 통한 개표 조작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가 영화적 이야기의 완결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과연 현실에서 개표 조작이 실제로 일어났는가를 영화의 이야기만을 근거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화 <더 플랜>은 극장 개봉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배급으로 관객들을 만나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었다. 그러자 사실상 영화의 피고발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였다. 우선 통계적인 관점에서 미분류표는 전체 모집단과 동질적인 표본이 아니라 특정 지지후보에 따른 지역과 세대별 특징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밝혔고, 우리나라의 투표지분류기 사

용은 외국의 전자투표제도와 달리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기타 개표 과정의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해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보관중인 18대 대선 투표지 현물을 통한 공개 검증 역시 감수하겠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설사 외부 통신망과 단절된 투표지분류기의 해킹이 가능했다하더라도, 전국 250여개의 개표소를 지키고 있던 사무원과 참관인 등 수백 명의 감시를 속이고 전국적인 개표조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 헌법기관인 선관위로서는 개표 과정에 대한 의혹은 곧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이 여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들은 적어도 영화만큼 여론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고, 제기된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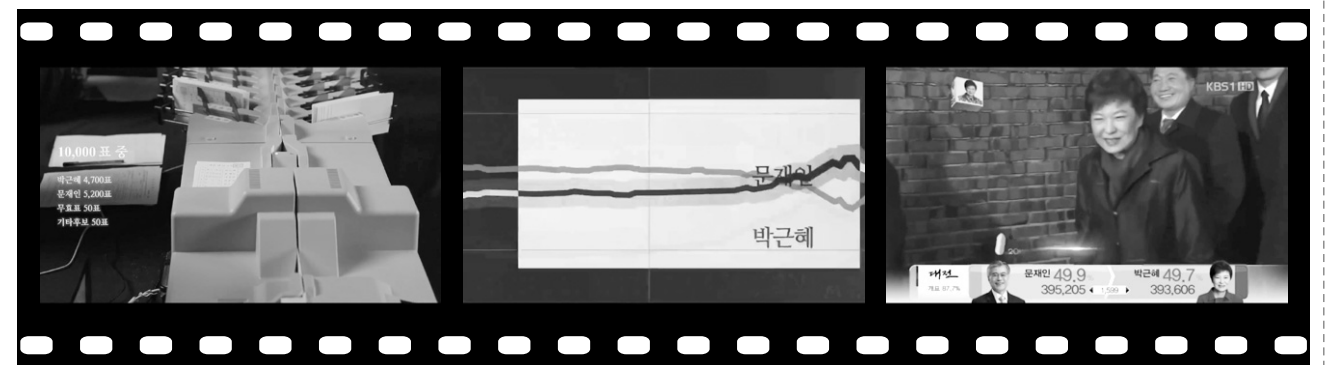
영화 <더 플랜>은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영화적 방법을 효과적으로 취하고 있다. 진행 시간이나 득표율 등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수치 자료는 단순한 그래픽 디자인을 통해 전달하고, 개표 절차를 형식적으로 단순화한 무대와 배우들의 안무를 통해 연출하고, 영화의 진행 과정마다 거듭하여 반복과 변주를 통해 보여준다. 또한 의견과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권위를 부여하여 관객들을 이해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연출자의 창의적인 고민과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논픽션적 주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관습적인 방법들로서, 특히 사건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촬영할 수 없는 경우의 대안적 형식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용산참사 사건을 다루며 화제가 되었던 다큐멘터리 영화 <두 개의 문>(2011)에서도 관객들이 볼 수 없었던 사건 현장과 법정을 시각화하기 위해 재연과 대역 녹음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바 있다.

사실 무형의 실체와 추상적인 사실관계를 가시화하여 관객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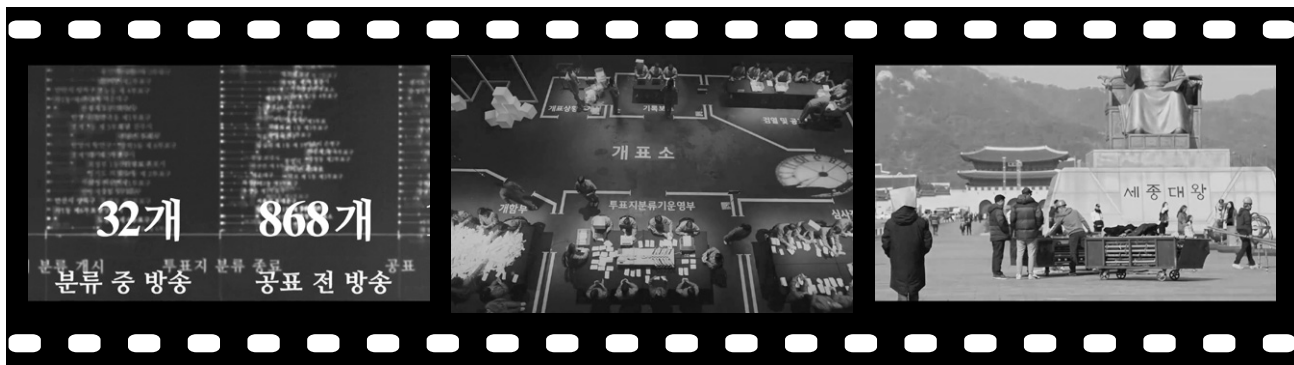
▲ 영화 <더 플랜> 중에서





은 영화와 같은 시각 매체의 오랜 과제였으며, 현실참여적인 다큐멘터리 영화들은 진실은 더욱 진실되도록, 혹은 적어도 그렇게 믿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왔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인지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일까.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라는 서양의 오랜 격언은 한편 실증적이면서도 동시에 종교적인 기원을 가진 어구이기도 하다. 영화는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상상력과 사고를 제한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매체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야할 이유가 있다.

세익스피어의 희곡 <오텔로>는 질투에 빠져 아내를 의심하며 비극에 빠지는 한 영웅의 이야기이다. 작가는 그러한 의심의 속성을 씨앗이 없이도 스스로 잉태하는 것이라 표현하기도 하였다. 하나의 의혹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더 많은 의혹을 필요로 한다. 과연 <더 플랜>이 제기한 대선 개표의 의혹은 과연 합리적인 의심일까 아니면 기존의 실체가 없는 음모이론을 확장한 것에 불과한 것일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유래 없는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면 공동체가 공유하는 사회적 신뢰의 수준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의심 공방 역시 쉽게 끝나기 어려울 것이며, 설사 영화가 제안하는 수개표 방식을 선관위가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내 곧 또 다른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합리적인 의혹과 공동체적 신뢰의 회복이라는 고민 사이에서, 현재로서 가능한 해답은 적당한 균형감각 혹은 우리 스스로의 성실한 이해와 사고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듯하다. 그리고 이제 새로이 시작하는 정부와 함께, 서로를 불신하는 미명의 시간을 어서 지나고 열린 내일을 함께 찾길 바랄 뿐이다. 



▲ 영화 <더 플랜> 중에서

## 돌아오지 않는 밀사: 이상설 이야기

• 지은이 | 강철근, 이상래 • 출판사 | 이채 • 쪽수 | 336쪽




시대를 뛰어넘는 지성,  
청년 독립지사 이상설(李相高)에 관한  
가슴 뜨거운 이야기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하면 ‘이준의 할복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정작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어떤 경로로 누구를 왜 특사로 파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중심에서 정사(正使) 이상설이 부사 이준, 통역을 겸한 이위종과 함께 평생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혼신을 다한 기록이 나왔다. 헤이그 밀사 이상설 선생 순국 100주년을 기념하여, 강철근 (사)한류국제문화교류협회 회장과 이상래 (사)이상설선생기

념사업회 이사장이 의기투합하여 『돌아오지 않는 밀사(密使)\_이상설 이야기』(도서출판 이채, 값 17,000원)를 펴냈다. (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는 돌아오는 4월 21~22일 이상설 선생의 고향 충북 진천에서, ‘민족독립운동가 보재 이상설 선생 순국 제 100주년 추모식’도 마련했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 ‘을사늑약의 불법성과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을 세계만방에 널리 알린 밀사’, ‘연해주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국내외 의병을 단일화(13도의군)했으며, 최초의 망명정부(대한광복군정부)를 세우고 국권회복 운동을 펼친 독립운동가’, ‘해외 최초의 신교육 기관이자 항일 독립운동의 본거지인 서전서숙(瑞甸書塾) 설립자’, ‘근대 수학과 과학 교육의 아버지’, ‘일제에 의해 사형언도를 받고 죽는 날까지 이국땅에서 망명객으로 독립투사로 살다 시베리아에서 산화한 로맨티스트’ 등 이상설 선생을 수식하는 말은 무수히



많다. “시시포스의 신화처럼 힘겹게 돌을 정상에 들어 올리는 청년 의지를 가지고 항일 독립 운동의 불씨를 당”기고 간 이상설, 일제의 교활한 방해 공작으로 헤이그 특사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그 역사와 의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다랗다. 『돌아오지 않는 밀사(密使)\_이상설 이야기』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의 심금을 절절히 울린다. 



# 건국절과 소녀상

## - 역사 국정교과서 유감

• 지은이 | 이인재 • 출판사 | 헤안 • 쪽수 | 272쪽



국정교과서 논란,  
소녀상 문제를 역사적 시각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수십 년 후, 역사가들이 박근혜 정권기를 언급할 때 반드시 짚어볼 사건들로 세월호사건, 비선의 국정농단, 그리고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과 ‘위안부’ 소녀상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박근혜 정권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건국절을 둘러싼 논란, 또 일본의 과거사 부정 및 ‘외교현안’ 과 직결된 소녀상 철거문제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학생 및 시민들을 보며, 중진 역사학자가 ‘역사적 시각’ 기준에서 정리한 결과물이다.

저자는 ‘현재를 파악하는 한 사료’로 21세기 대한민국 교육부의 역사 국정화를 택했다. 몇 년간 기자와 학자와 교육자, 공무원, 시민이 모두 관심 있게 글을 쓰고, 말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사실(史實) 중심에서 사료(史料) 중심으로, 교과서의 검정을 넘어 자유발행체제로 넘어가는데, 21세기 대한민국 행정부는 왜 검정보다 못한 국정으로 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는지를 정리해 보는 것은 ‘기사와 논문’ 들을 가지고 역사적 상상력을 학습하고 발휘하는 데 매우 적절한 소재이다.

이 책을 통해 기자의 기사와 학자의 논문, 그리고 학자들이 구사한 최소한의 사료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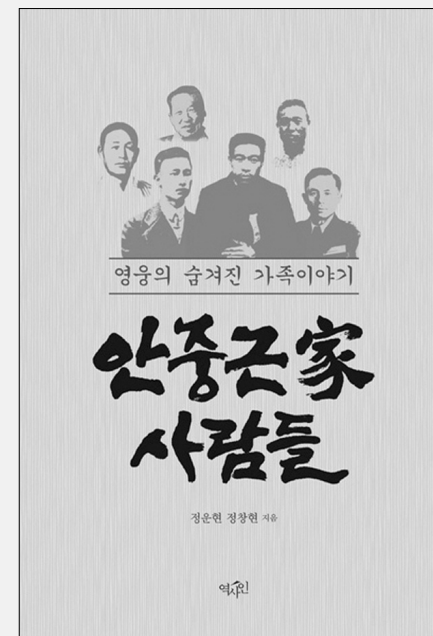
저자가 주장의 열개를 만드는 법을 따라가다 보면, 책을 읽는 독자 스스로 사료중심의 역사 교육이 무엇인지, 기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기자의 기사와 학자의 논문과 언급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를 알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 안중근家 사람들

### - 영웅의 숨겨진 가족이야기

• 지은이 | 정운현, 정창현 출판사 | 역사인 • 쪽수 | 464쪽



#### 왜 안중근이 아닌 안중근家 사람들인가?

이 책은 삼대에 걸쳐 안중근 일가가 우리 근현대사에 남긴 족적을 꼼꼼히 추적한 기록이다. 이를 위해 기존 자료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여러 관계자의 증언을 폭넓게 활용했다.

그동안 이회영 일가, 이상룡 일가 등이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가문으로 재조명되었으나 의외로 안중근 일가의 독립운동과 행적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가문을 대표하는 안중근은 '영웅'으로 추앙받아 많은 전기와 평전이 나오고 영화, 연극, 드라마, 소설 등으로 부활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친동생과 사촌형제, 조카 등 안중근 일가가 우리 근현대사에 남긴 발자취는 연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망각의 역사' 속에 묻혀 있다.

부끄럽고 안타깝게도 순국한 지 10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안중근의 유해조차 찾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다. 부친의 묘는 북한에 있지만 그의 사후 독립운동에 뛰어든 안태건, 안태순 등 안 의사의 숙부를 비롯해 모친과 친동생 안정근, 안공근도 해방된 조국에 돌아오지 못했고, 어디에 묻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향일을 하면 삼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삼대가 흥한다”는 부끄러운 현실은 안중근 일가




도 예외가 아니다. 안중근의 의거 이후 그의 일가에 가해진 일제의 감시와 탄압은 가혹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대부분이 러시아, 중국으로 망명해 독립운동의 대열에 합류했다.

안중근은 사형 직전 남긴 옥중 자서전에서 “우리 대에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아들 대, 손자 대에 가서라도 반드시 대한국의 독립권을 회복하고야 말리라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유지를 남겼다.

그의 유지대로 부친 안태훈부터 시작된 안중근 일가의 독립투쟁은 대를 이어 조선, 만주, 중국, 홍콩, 러시아 등지에서 다양한 이념과 노선에 기초해 이루어졌다. 3대에 걸쳐 항일 독립운동과 해방 후 민주화, 통일운동에 헌신한 안중근 일가의 곡절 많은 이야기는 그 자체로 우리 근현대사의 자화상이다. 그러나 광복된 조국의 상황은 혼란스러웠다. 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안중근 일가는 또 다시 남북으로 나뉘고 미국 등지로 흩어졌다. 안중근 의사는 여전히 영웅으로 추앙받지만 그의 일가는 해방 조국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에 반해 2대에 걸쳐 뚜렷한 친일행적은 남긴 윤치영 가문은 해방된 뒤에도 승승장구했다. 심지어 윤치영은 1963년에 결성된 안중근숭모회의 초대이사장까지 지냈다. 청산되지 못한 역사, 왜곡된 현대사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안중근 의사는 “불의를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라”고 말했다. 역사를 반성할 줄 모르는 민족은 또다시 역사의 횡포를 만날 것이고 역사를 통찰할 줄 모르는 민족은 미래로 전진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는 게 별로 없는 안중근 가문에 대한 재조명은 과거에 대한 성찰을 넘어 새로운 미래상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삼대에 걸친 안중근 일가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가 아닌 현재의 난제를 풀어나가는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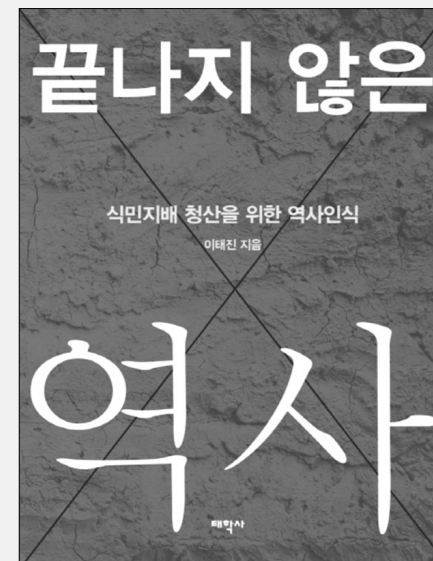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인간 안중근’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안중근 일가가 남긴 위국헌신(爲國獻身,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침) 정신을 새롭게 조명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 끝나지 않은 역사

## - 식민지배 청산을 위한 역사인식

• 지은이 | 이태진 • 출판사 | 태학사 • 쪽수 | 424쪽




요시다 쇼인,  
쇼카손주쿠 그리고 정한론

명성황후를 살해한 자들은 누구인가? 조선을 지키기 위해 중립국으로 나아가기로 한 고종, 그를 집요하고 철저하게 방해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은 누구인가? 한국을 비롯 아시아의 많은 나라를 침략한 이들은 누구인가?

이 인물들은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쇼카손주쿠(松下村塾)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영향을 받았다. 수많은 나라들이 쇼인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들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아베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존경하는 인물을 요시다 쇼인으로 꼽

은걸 보면 요시다 쇼인은 죽었으나 정한론을 비롯한 그의 위험한 정신은 아직도 현재 진행중이다.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전쟁 망령들이 일본에 살아있고 부활을 꿈꾸고 있다.

오늘의 한국과 일본은 100여 년 전 자국 역사에 대한 인식에서 매우 대조적이다. 한국은 100년 전의 역사를 실패한 역사로 간주하고 군주에게 망국의 책임을 모두 지우고 있는 반면, 일본은 제국의 팽창의 근원을 이룬 요시다 쇼인의 사상을 극대화하여 미화, 추송하고 있다. 한국 측은 현재의 인식에 일제의 고의가 작용한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패배주의 색채를 띠고 있는 반면, 일본 측은 가해에 대한 반성 없이 침략주의를 부활시키려는 기운을 보이고 있다. 총리대신 아베 신조(安倍晉三)의 요시다 쇼인 숭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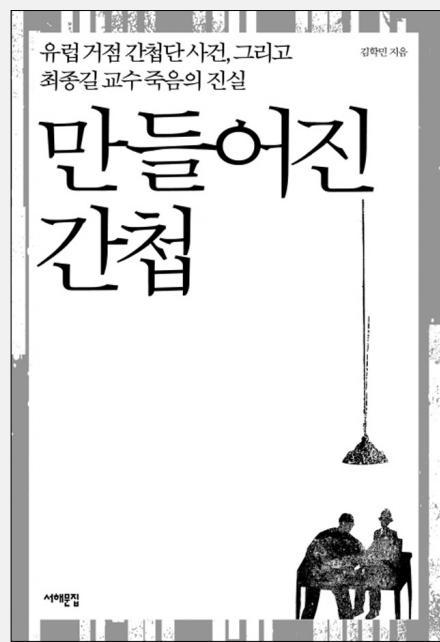




# 만들어진 간첩

-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 그리고 최종길 교수 죽음의 진실

• 지은이 | 김학민 • 출판사 | 서해문집 • 쪽수 | 512쪽




1973년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의 실체, 그리고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는 『만들어진 간첩』. 최종길 교수의 동생 최종선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중앙정보부의 이 거짓 ‘발표’를 뒤집기 위해 싸워 온 30여 년의 여정, 그리고 최 교수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배경이었던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의 실체와 그 전개 과정을 파헤쳐 정리한 결과물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최종길 교수는 1973년 10월 16일 오후, 당시 중앙정보부 직원이었던 동생 최종선의 안내로 정보부에 출두했으나, 사흘 후인 10월 19일 새벽 ‘간첩 혐의 자백 후 투신자살’이라는 중앙정보부의 일방적 ‘발표’와 함께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다. 그의 죽음

에는 간첩의 증거는커녕 자필 진술서나 심문조서, 구속영장 한 장 없이 중앙정보부의 밀도 끝도 없는 ‘발표’만이 들쭉날쭉 있을 뿐이었다. 그 닷새 후인 10월 25일, 중앙정보부는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최 교수를 거기에 끼워 넣었다.

최 교수가 죽은 원인이 된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은 대표적인 조작 간첩 사건으로, 1973년 10월 25일 중앙정보부는 수사 끝에 유럽에서 유학 또는 연수를 한 교수와 공무원 등 총 54명이 간첩이라고 언론에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실제로는 동생과 함께 ‘자진 출두’한 최종길이 ‘검거’되어 간첩임을 자백하고 화장실을 통해 투신자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

정보부의 이런 일방적 주장과 발표는 끝내 진실이 아니었다.

최종선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조직에서 조사받던 형이 갑자기 죽은 데 대해, 큰 분노와 절망을 느꼈다. 하지만 막강한 조직에 제대로 분노를 표출하기란 어려웠다. 이에 최종선은 형의 억울한 죽음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심하고, 이를 ‘양심수기’로 기록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이처럼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진실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들의 피나는 노력과 ‘가해자들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정의란 무엇인지’를 되묻는다는 저자의 이야기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우당 이회영 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식



광복회와 (사)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가 공동주최한 우당 이회영 탄생 150주년 기념식이 4월 21일 오후 서울 명동 YWCA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유철 광복회장, 윤형섭 전 교육부장관과 이종찬 전 국정원장, 이종걸 국회의원을 비롯 광복회 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박유철 회장의 축사와 홍일식 회장의 기념사로 시작된 기념식 행사에서는 이근배 대한민국의예술훈회장의 헌시낭독, 우당 선생이 윤형섭 장관의 부친 일농 윤복영 선생에게 동지로서의 증표로 전달한 “난이증교(蘭以證交)”와 선생의 망명 중 국내 잠입활동에 대한 윤 장관의 설명 등이 있었으며 이상봉 성균관대 미술과 교수는 직접 그린 우당 선생 초상화를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원장에게 기증하였다.

제23회 한국여성독립운동사 학술연구발표회



(사)3.1여성동지회(회장 임숙자)는 4월 26일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제23회 한국여성독립운동사 학술연구발표회를 열었다. 1부 기념식은 임숙자 회장의 인사에 이어 축사, 3.1 여성상 시상, 감사패, 장학증서 수여,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2부 학술연구 발표에서는 윤정란 교수가 “여성독립운동가 이신애와 대동단” 주제 발표에 이어 박용옥 명예회장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최

수향 지사의 항일독립운동과 충효정신”을 주제로 신영숙 교수의 발표에 이어 주영숙 명예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광복회 호주지회 장학생들의 독립정신답사단 답사 참여

2017년도 광복장학회 장학생 모집공고

재호 광복장학회는 지난해 3·1절을 기해 '21세기 청소년 독립운동가 육성'의 가치 아래 광복회 호주지회의 산하재단으로 설립되어 호주 한인 청소년 대상 장학금 수여 및 대학생 대상 중국독립운동사적지 현장답사 교육경비 일체를 지원하는 첫 사업을 실현했습니다. 2017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2기 광복장학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2017년도 2기 광복장학생 모집요강

구분	청소년	대학생
대상 및 인원	호주 거주 한인 청소년 (7~12학년) 6명 (한국어가 특출하고 장애성 있는 외국 학생 포함)	호주 거주 한인 대학생 2명 (해외 여행에 걸려 사유가 없고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소지자)
선발기준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이 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확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민족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이 투철하고 리더십과 비전을 지닌 학생 (한국어 필수)
지원내용	1인당 장학금 \$300, 장학증서, 부상	한국왕복항공료, 중국 답사경비 전액, 장학증서, 부상
신청방법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규정 양식)를 작성하여 klsa815@hotmail.com으로 제출	
신청마감	2017년 6월 30일 (당일 신청분까지 유효)	2017년 5월 31일 (기한영수)
발표 및 수여식	11월 초 개별통보, 11월 17일 제 78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장 (시드니 한인회관)	6월 초 개별통보, 7월 중 중국 답사교육 참가, 11월 17일 제 78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장 (장학증서, 부상 수여)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발된 대학생은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중국 서안, 낙양, 북경 등 6개 도시의 독립운동사적지 답사교육에 합류하여 총 참가학생 50명의 교육활동에 따라 별도 시상과 장학금이 수여되고 답사 수료증을 받게 됨 (모국 방문을 감하도록 중국 답사기간을 포함한 호주 출발, 도착일은 자유 선택)</li> <li>중국 답사 일정표,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양식 등 상세 내용은 시드니한국교육원 홈페이지(www.auskec.kr) 참고</li> <li>장학생 선발 시 1, 2회 청소년 민족캠프 및 광복회 호주지회의 각종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우대함</li> <li>청소년 민족캠프 참가학생들은 광복장학회의 수혜 혜택에 있어 지속적으로 우대 대상이 됨</li> <li>제3회 청소년 민족캠프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니 많은 참가 바람 (대학생은 운영위원으로 참가 가능)</li> </ul>	
문의	0433 249 567, 0410 510 249, klsa815@hotmail.com	

◆ 광복장학회 장학기금 : 매년 청소년 민족캠프 참가비, 장학회 임원 회사금, 기타 기부금으로 조성됩니다. 민족캠프 참가학생 및 학부모님, 장학회 임원 13분(강수환, 고동식, 고희주, 김구홍, 김상호, 김숙희, 김현수, 김형, 변종윤, 윤석원, 이숙진, 형주백, 황명하 - 가나다순, 존칭생략)과 원더풀퍼시픽여행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광복장학회 이사 초빙 : 호주 한인 차세대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함양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호주사회에 기여할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회 이사(회사금 년 \$300 이상)로 동참하실 분들을 환영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복장학회 후원 안내 : 후원해 주실 분들은 장학회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수혜인원과 지급금액을 늘려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Bank : Bendigo Account Name : KLSA BSB : 633 000 Account No : 156 973 802

후원: 광복회 호주지회 KEC, 한국여성독립운동사학회, 민주평통호주협의회, 한일일보, WONDERFUL TRAVEL  
광고협찬: 시드니저널, 일요신문, 코리아타운, 크리스천라이프, 한국신문, TOP NEWS

재호 광복장학회 이사장 황명하  
Korea Liberation Scholarship in Australia

도 2기 장학생을 모집하며 선발된 대학생 중 일부 학생은 부상으로 본회 독립정신답사단에 참여하는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광복회 호주지회(회장 황명하)는 지난해 3.1절을 기해 “21세기 청소년 독립운동가 육성”의 가치로 산하재단 “재호 광복장학회”를 설립하여 호주의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장학생 선발과 부상으로 2~3명(예정)의 학생에게 본회 주관 독립정신답사단 답사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지난해에는 광복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김현우(호주 시드니 대학교), 우현식(호주 맥쿼리 대학교)학생이 독립정신답사단에 참여하여 매우 우수하고 모범적으로 답사 활동을 수행하였다.

금년에도 호주 거주 한인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17년



### 해공 신익희 선생 61기 추모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직을 역임하고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신익희 선생을 기리는 '해공 신익희 선생 61주기 추모식'이 5일 오전 11시 서울 수유동 신익희 선생 묘전에서 (사)해공신익희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렸다.

신익희 선생은 1919년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어 국호, 관제, 정부 관원 및 임시헌장 등을 의결·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에 기여했다.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요 요직들을 두루 역임하면서 임시정부를 통한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광복 후 제헌국회 부의장, 민주국민당 위원장, 제2대 국회의원 등을 직임하였고 이후 민주국민당을 민주당으로 확대 발전시켜 대표 최고위원이 됐다.

1956년에는 민주당 공천으로 대통령에 입후보했으나 유세 중 서거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 철기 이범석 장군 제45주기 추모제



청산리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고, 광복 후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범석 장군을 기리는 「철기 이범석 장군 제45주기 추모제」가 11일(목)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사)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회장 박남수) 주관으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렸다.

이 날 추모식은 이경근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한 각계인사와 유족, 기념사업회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 내빈의 추모사, 헌화·분향, 묵념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범석 장군은 1915년 16살의 나이에 상해로 망명하여 군관학교에서 무예를 배우고 만주로 떠나 북로군정서 장교로 북로군정서의 정비에 힘써 청산리 전투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후 한국 광복군 참모장, 제2지대장 등을 역임하며 독립전쟁에 힘썼고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의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 주중 대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1952년, 1956년 두 번 부통령에 입후보했으나 낙선하였다. 1960년 초대 참의원에 당선되었고 1969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다.

#### 알려드립니다

본회 제92호(2017년 3,4월호) 회보 52~54페이지 5기 임원명단에  
본회 임원(이사)이신 황명하(광복회 호주지회장)님이 누락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황명하 이사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사무실 이전

오는 6월 2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기존의 태평로 1가 오양수산빌딩 305호에서 세종문화회관 뒤편 로얄빌딩 6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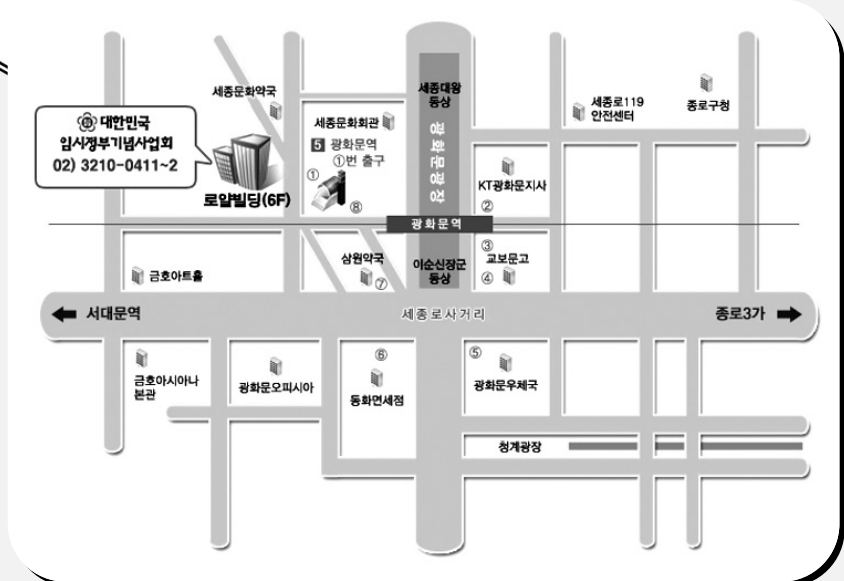
기존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49(태평로1가)

오양수산빌딩 305호

➡ 변경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당주동5)

로얄빌딩 6층

전화번호는 확정되면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7년 3월, 4월 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3월	4월	회원명	3월	4월	회원명	3월	4월
강만길		2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종찬	100,000	100,000
강재욱	20,000	20,000	박인석	10,000	10,000	이창윤	10,000	10,000
강찬모	20,000	20,000	박재민	10,000	10,000	이창중	20,000	20,000
곽태원	50,000	50,000	박정근	30,000	30,000	이철	10,000	10,000
권경업	50,000	50,000	박제선	30,000	30,000	이학노	20,000	20,000
권영관	10,000	10,000	박형순	10,000	10,000	이학호	10,000	10,000
길사원	10,000	10,000	배다지	10,000	10,000	이항중	30,000	30,000
김광림	30,000	30,000	배상윤	5,000	5,000	이해나	20,000	20,000
김동수		30,000	배석준	5,000	5,000	이해준	10,000	10,000
김동현	10,000	10,000	배해원	30,000	30,000	이현진	10,000	10,000
김률근	10,000	10,000	백낙청	10,000	10,000	이호현	20,000	20,000
김봉현	30,000	30,000	변병식	100,000	100,000	이후삼	10,000	10,000
김삼웅	20,000	20,000	빙인섭	30,000	30,000	임재경	10,000	10,000
김선군	10,000	10,000	서동희	5,000	5,000	임진택	5,000	5,000
김성곤		10,000	서봉수	10,000	10,000	장두영	10,000	10,000
김성배	10,000	10,000	서홍관	30,000	30,000	장두원	20,000	20,000
김숙정	50,000	50,000	석혜진	10,000	10,000	장상록	10,000	10,000
김영방	10,000	10,000	신명식	10,000	10,000	장채령	10,000	10,000
김영일	10,000	10,000	신윤경	500,000	500,000	전영복	10,000	10,000
김용수	5,000	5,000	신홍범	10,000	10,000	정관훈	100,000	100,000
김 위	20,000	20,000	심재권	30,000	30,000	정만기	30,000	30,000
김윤영	10,000	10,000	안재용	10,000	10,000	정범구	10,000	10,000
김은수	10,000	10,000	양민선	10,000	10,000	정철승	30,000	30,000
김자동	100,000	100,000	엄기남	10,000	10,000	조명숙	10,000	10,000
김재홍	10,000	10,000	엄승훈	10,000	10,000	조세현	10,000	10,000
김정록	70,000	70,000	오상균	10,000	10,000	조영빈	5,000	
김정인	20,000	20,000	오정섭	10,000	10,000	조용욱	10,000	10,000
김종규	10,000	10,000	오정수	20,000	20,000	조인형	10,000	10,000
김종성	10,000	10,000	이상호	10,000	10,000	조정훈	30,000	30,000
김중숙	10,000	10,000	원영애	20,000	20,000	조회환	20,000	20,000
김진모	20,000		유덕곤	10,000	1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진영	10,000	10,000	윤경자	40,000	40,000	차영조	20,000	
김진현	50,000		윤용환	10,000	10,000	천정배	10,000	10,000
김태원	10,000	10,000	윤종순	5,000	5,000	최권행	30,000	30,000
김판수	5,000	5,000	윤철호	100,000	100,000	최문성	10,000	10,000
김학근	20,000	20,000	윤한욱	10,000	10,000	최문순	10,000	10,000
김호진	10,000	10,000	이계환	10,000	10,000	최수희	30,000	30,000
김홍수	10,000	10,000	이규중	30,000	30,000	최희주	10,000	10,000
김희선	10,000	10,000	이기자	10,000	10,000	한의석	10,000	10,000
남만우	50,000	50,000	이동진	20,000	20,000	한홍구	20,000	20,000
노수문	20,000	20,000	이두희	30,000	30,000	함세웅	30,000	30,000
노영택	10,000	10,000	이범중	100,000	100,000	홍범식	20,000	20,000
노영래	20,000	20,000	이상준	200,000	200,000	홍석천	5,000	5,000
류동연	20,000	20,000	이상훈	20,000	20,000	홍용희	10,000	10,000
류한수	15,000	15,000	이상순	20,000	20,000	황명하	10,000	10,000
민향선	30,000	30,000	이영국	10,000	10,000	황용만	5,000	5,000
박녹삼	10,000	10,000	이영숙	10,000	10,000			
박덕진	10,000	10,000	이우재	10,000	10,000			
박동기	100,000		이윤옥	20,000	20,000			
박두곤	10,000	10,000	이응국	5,000	5,000			
박용규	10,000	10,000	이일선	20,000	20,000			
박유진	10,000	10,000	이재선	5,000	5,000			

2017년 3월, 4월 특별회비

회원명	3월	4월
㈜오트오티오	8,000,000	2,000,000
김판수	3,000,000	



## 서대문형무소와 독립운동가 ㉓

## 유창우와 서대문형무소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원으로 활동한 유창우(1884.12.11~1921.11. 2)는 경상북도 안동(安東) 출생이다. 그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독립운동가 판결문(1920. 12. 23. 경성지방법원), 제적등본(1921. 11. 2. 서대문감옥에서 사망), 고등경찰요사,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등이 있다. 이 자료들에 기록된 내용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 독립운동에 가담한 일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1918년 일본으로 건너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유창우는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상해로 건너갔다. 1920년 4월 하순경 상해(上海)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원인 이항(李香)과 함께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공채권을 발행하고 조선 내에서 발매할 것을 기획하였다. 유창우는 이항으로부터 확실한 보증인을 데려오면 공채를 발매하게 해줄 수 있다는 뜻을 듣고, 대한민국임시정부요원 다수와 함께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독립공채 발매를 결의하여 1920년 5월 전부터 알고 있던 신태균 및 신헌후 2명을 보증인으로 삼아 오사카에서 이항이 있는 상해로 데려 갔다.

1920년 9월 14일 이항의 소개로 상해 불조계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재무총장 이시영과도 만나 조선독립을 위한 공채 모집에 종사할 것을 서약(독립공채모집서약)하고 경상북도 안동군 공채모집위원으로 피명(被命)되었다. 이 내용은 임시공채관리국 공채모집위원 일람표에서도 확인되는데 유창우는 단임구역이 경상북도 안동군이며 임명일자도 임시정부 2년 9월 14일로 되어 있다. 또한 적에게 피체되어 공채 몰수 피탈된 일로 신문에 게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등경찰요사에는 일본 장기수상경찰서(長崎水上警察署)는 상해로부터 입항한 춘일환(春日丸)에서 유창우(山本一郎, 慶尙北道 安東郡 豊南面 河回里)를 불심 검문 체포하여 경기도 제3부에 인계하였다고 하면서 유창우는 오사카(大阪)에 주거하다가 한국독립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상해로 가서 대한민국임시정부경상북도 안동군 공채모집위원이 되어 임명사령서(任命辭令書)와 공채 2만원을 은닉하고 귀국하는 도중 피체된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문서의 '임시공채관리국 공채모집위원 공채 조정액 급 성적'에는 유창우가 갖고 있던 금액이 상세히 나와 있다. 100圓券 : 100枚, 500圓券: 50枚, 1,000圓券 : 5매로 총액 20,000원이었다. 그리하여 독립공채를 휴대한 후, 안동군 및 그 외 조선 지역에서 공채를 발매하기 위해 당일 상해를 출발하여 1920년 9월 26일에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상륙하던 중, 잠복해 있던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임시공채관리국 공채모집위원 일람표 유창우의 이름 옆에는 9월 24일에 귀국 도중 적경 나가사키(長崎)에서 피체, 공채 전부 피탈되었다는 기록을 통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재판 판결문에는 대정 9년(1920년) 9월 26일 무렵 장기 수상경찰서에서 경찰범 처벌령 위반으로 구류 20일에 처하게 된 자로 유창우의 범행은 당시 일제의 법률에 비추어 대정 8년(1919년) 제령 제7호 제1조 제1항, 제3조에 해당하여 징역형이 결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위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형법 50조는 적용하고 압수물건은 몰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형사 소송법 제 202조에 따라 압수물건은 유창우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위의 사실은 검사의 피고인 조서에서 판사와 동 취지의 공술 기재가 있어 그의 죄를 증빙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작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1920년 12월 23일 경성(京城)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이란 죄목이 적용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의 수감생활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제적등본에 서대문형무소 사망이라 기재되어 있어 그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21년 11월 2일에 옥사(獄死) 순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제공〉

## ◆ 입 회 원 서 ◆

이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택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소		
직업	소속	
비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출금시작월	(      )월
납부금액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4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20만원 <input type="checkbox"/>		
	자유지정금액 <input type="checkbox"/> (      원)		

-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



주최 : 새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후원 : 동북아역사재단 대학내일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학생 No.1 미디어

# 제 13기

# 투립정신

# 답사단 모집

어서와~  
임정 답사는  
처음 이지?



답사지역 \_ 서안 - 낙양 - 섭현 - 한단 - 석가장 - 북경

답사기간 \_ 2017년 7월 18일(화) ~ 7월 24일(월)

선발인원 \_ 국내외 대학(원)생 50명, 일반인 10명 내외

선발대상 \_ 역사와 민족의식에 관심이 많은 남녀대학생 및 일반인,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접수기간 \_ 서류접수 2017년 5월 25일(목) ~ 6월 6일(화)

선발발표 \_ 2017년 6월 9일(금) 본회 홈페이지

신청방법 \_ 본회 홈페이지(www.kopogo.com)에서 접수

참가비 \_ 학생 65만원, 일반인 150만원 [일체경비 포함]

기 타 \_ 참가자 전원에게 답사 수료증 수여

세부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www.kopogo.com 참조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습니다.]